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적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애 경

2014년 8월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적 관계

지도교수 김 성 봉

김 애 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김애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8월

<국문 초록>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적 관계

김 애 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 모형에서, 변인 간 인과적 관계가 적합한가?
-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대학생으로 표집하면서, 심리학과 학생들을 임의 표집하였다.

전국의 대학교 중 한국심리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39개교 심리학 관련 4년제 대학 중 먼저 학과 교수와 조교에게 협조를 구하고 승낙한 학교 11개교 재학생

595명과 제주도내 4년제 대학 중 1개교 재학생 60명으로 총 4년제 대학 12개교 재학생 655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655명 중 588명의 자료가 회수되어 89.7%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일부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한 452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어 자료 유효율은 76.8%을 보였다.

조사 도구는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치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과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을 규명하는데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등의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변인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와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와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 간의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모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은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각각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은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은 동시에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 간의 인과적 모형 적합도가 모두 양호하여 변인간의 인과관계가 적합하다고 확인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모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대학생 시기에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다른 변인들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기반으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이 함께 강화되어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은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에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독립 수준도 함께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 시기는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사이에 개인내적인 변인인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변인 외에 다른 변인들과 외부적인 여러 변인들의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외부 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위로능력 측정 도구를 다수의 연구자가 일부 하위변인을 제외하여 사용하거나 일부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다양한 대상들에게서 변인간의 관계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점을 감안한다면, 자기위로능력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자기위로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 시기에 이르러서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사이에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 변인 외에 다른 내·외적 변인들의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대학생,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구조방정식 모형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5
3.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부모애착	8
가. 애착	8
나. 부모애착	10
다. 부모애착의 선행연구	12
2. 자기위로능력	14
가. 자기위로능력	14
나. 자기위로능력과 대상관계이론	18
다. 자기위로능력의 선행연구	22
3. 심리적 독립	26
가. 심리적 독립	26
나. 심리적 독립의 선행연구	32
4. 자아탄력성	34
가. 탄력성의 개념	34
나. 자아탄력성	38
다. 대학생활과 자아탄력성	41
라. 자아탄력성의 선행연구	43
5.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45
가.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45

나. 자기위로능력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46
다.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47
라. 부모애착과 자기위로능력의 관계	48
마.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의 관계	50
바.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의 관계	51
Ⅲ. 연구방법	54
1. 연구모형	54
2. 연구대상	55
3. 측정도구	57
4. 자료분석	62
Ⅳ. 연구결과 및 해석	65
1. 기초자료	65
2. 측정모형 분석	70
3.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및 모형 수정	74
4.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영향 관계	82
5.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84
Ⅴ. 논의 및 결론	88
1. 논의	88
2. 결론	94
참고문헌	98
Abstract	114
부 록	118

표 목 차

표 II-1.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의 관계 종합	53
표 III-2. 부모애착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58
표 III-3. 자기위로능력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59
표 III-4. 심리적 독립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60
표 III-5. 자아탄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61
표 III-6.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판단 기준	64
표 IV-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6
표 IV-8.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67
표 IV-9. 관찰변인의 왜도와 첨도	68
표 IV-10.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69
표 IV-1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	71
표 IV-1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1
표 IV-13. 가설적 구조회귀모형의 요인계수 및 경로계수	76
표 IV-14. 가설적 구조회귀모형의 잠재변인 다중상관자승	77
표 IV-15. 오차항간의 M.I. 및 Par Change의 값	79
표 IV-16. 가설적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의 모형적합도 비교	80
표 IV-17. 변인 간 영향관계에 대한 효과 분석 결과	82
표 IV-18.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85

그 립 목 차

그림 III-1. 가설적 연구모형	54
그림 IV-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3
그림 IV-3. 가설적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74
그림 IV-4. 최종 구조모형 결과	8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의 통제되고 수동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정체성 확립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지체시켜 오다가,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독립적 능동적인 생활환경으로의 대전환 및 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되며(이은희, 2004), 중·고등학교 시기와는 다르게 가치관의 확대, 변화와 선택, 학업, 대인관계, 진로 등 생활 전반에 적응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정체감 형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 진로결정 등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이 대두되고 있다(Lapsley, Rice & Shadid, 1989). 또한 청소년기에 이룩해야만 했던 발달과업과 함께 청년기에 요구되어지는 발달과업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이은석, 2010).

그러나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성인의 역할을 맞이해야 하는 것은 모든 청년기의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며(Ward & Spitze, 1992; Block & Kremen, 1996; Furstenberg, 2000), 자기 의지적이며 자기 통제적인 생활이 요구되고 있기에(김휘윤, 2012), 대학생활은 그들에게 적응전략 또는 대처 매커니즘의 도전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이때 적응이라는 것은 대학생들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탄력적인 특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부각됨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시작하였고, 자아탄력성은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이은정, 2013). 또한 자아탄력성은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다(성선진, 2010).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적절한 자아통제를 바탕으로 융통성있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

력(Kremen, 1996)을 말한다. 즉 문제 상황을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자아통제력을 발휘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메타능력(이은석, 김성희, 2012)으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아개념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과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심리·사회·환경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부모는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을 이룰 때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적 경험과 동시에 행동양식의 모델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1980년대부터 부모의 영향을 강조한 연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선혜연, 2008).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과 관련 높은 요인 중 하나가 부모애착이며, 이는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유대감을 의미하며, 단순히 개인의 유아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는 대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압도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인이다(임진, 2003; Bowlby, 1958; Ainsworth et al., 1978).

인생 초기에 형성된 안정성(security)은 발달적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지니게 하여(Kobak & Sreery, 1988), 내적 자원을 지닌 개인이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로 안정되고 편안한 가정환경과 어머니와의 안정애착이 자아탄력성과 관련 있다는 결과들이 지지되었다(Kobak & Sreery, 1988; Sroufe, Carlson & Shulman, 1993; Kerns & Steven, 1996).

대학생들의 적응과 탄력성의 필요한 시기에 타인들이 조언이나 충고, 혹은 지지나 공감과 같은 도움에만 의지하여 극복하기는 어렵고 독립적인 적응,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이지연, 양난미, 2007). 즉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의존적이고 수동적 이기 만한 존재가 아닌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내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인 적응능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스스로 위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제인 자기위로능력이다(박효서, 1999).

자기위로능력(soothing ability)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인 자원을 사용하여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생의 초기에 획득한 자기위로능력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oser, 1991).

성인기에 접어들고 있는 대학생인 경우, 아동기나 청소년기처럼 타인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로가 되는 과정은 많지 않고 끊임없는 스트레스 등 대학생활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기만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위로능력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Lazarus(2000)도 인간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발달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보호적 적응 기제(protective adaptive mechanism)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 적응 기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키워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기위로능력이 적응적인 보호기제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애착을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애착과 심리적 독립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은 청소년기 이전까지 지속되던 부모와의 애착 및 의존에서 벗어나 이루어지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적 발달과업 중 하나로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기초로 작용한다(Blos, 1979). 즉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체계를 토대로 촉진되는 개인의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으며(장휘숙, 2002; Greenberg et al., 1983; Moore, 1987),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애착과 심리적 독립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심지연, 2013).

심리적 독립은 청소년들이 태도적, 기능적, 정서적, 갈등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능력(Hoffman, 1984)을 의미하고, 자녀가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결손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Josselson, 1988). 즉 청소년기 이후에 심리적 독립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원만한 인간관계, 확신 있는 직업의 선택이나 준비, 자아정체감 확립 등 이후의 발달과제 수행이 어려워진다(박현주, 2005).

심리적 독립과 관련하여 서구 사회와는 달리 부모와의 상호의존적인 유대관계와 관계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 시기에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성인기에 접어들고 있는 대학생 시기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이 어떻게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의 자아탄력성 연구는 자아탄력성의 영향 또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성격특질적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자아탄력성이 발달단계나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 가능한 특성으로 보고(김동희, 2003)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관점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박원주, 이기학, 2008), 내재화 경로나 내재화 요인(박원주, 2012) 등의 연구가 증가되었다. 아울러 탄력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적응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평범한 마술(ordinary magic)’ 적 현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는(Masten, 2001; Bonanna, 2004)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 시기는 심리적 발달이 완속되어 가는 과정에 여러 요인들의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자아탄력성을 매개하는 변인을 검증하는 연구는 자아탄력성 분야의 탐색적 연구로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도기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이 스트레스에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건강이 필요성을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 내적 변인들인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이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즉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사이를 매개하는 보호요인으로써 개인내적 변인인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이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적응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탄력적인 대학생활을 모색하는데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며,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 및 심리적 독립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 모형에서, 변인 간 인과적 관계가 적합한가?

가설 1.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2-2.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가설 2-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3-1.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가설 3-2.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가설 3-3.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은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가설 3-4.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애착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며(Bowlby, 1982), 부모애착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형성된 안정적이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Ainsworth, 1989). 본 연구에서의 부모애착 측정은 1987년 Armsden과 Greenberg가 청소년들의 부, 모, 또래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것을 옥정(1998)이 번안·수정한 부, 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판(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에서 부, 모의 애착만을 측정하였으며 하위요인은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을 제시하였다. 일부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 자기위로능력

자기위로능력(soothing ability)은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불유쾌한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인 자원을 사용하여 불유쾌한 정서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Moser, 1991). 본 연구에서는 자기위로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1989년 Glassman이 개발한 Self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를 박효서(1999)가 번안·수정한 척도로 하위요인 중 회복력, 자기노출, 스스로 위로하기를 제시하였다. 일부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위로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 심리적 독립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separation)은 자녀가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및 결속 관계를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심리내적 과정이다(Josselson, 1988). 본 연구에서는 Hoffman(1984)이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Separation)을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과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정체감 획득은 적응을 향한 개인의 욕구라고 하였다. 청소년 후기의 심리적 독립은 갈등적 독립이 심리적 독립 자체라고 하며 다른 하위척도와 상관되지 않는다고 하여(Baker & Siryk, 1989) 하위요인 중 갈등적 독립을 제시하였다. 모두 역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라.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이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다.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이며, 넓은 의미로는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Block & Block, 1980).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이은석, 김성희(2012)가 문제 상황을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자아통제력을 발휘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메타능력이라 정의하며 하위요인은 긍정적 사고, 정서조절, 목표지향성, 의사소통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대학생이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부모애착

가. 애착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뜻한다(Bowlby, 1958; Ainsworth et al., 1978). 애착은 근본적으로 선택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극히 소수의 제한된 대상에 대해서 형성되며, 애착이 형성된 대상에 대해서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근접해 있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어 애착행동이 따르게 된다. Bowlby(1988)와 김수임, 김창대(2009)는 애착을 아동초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친밀한 유대관계로 인간의 일차적인 요구이자 인간발달의 일차적인 목표라 하였다. 이러한 애착(Attachment) 개념은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Bowlby(1969, 1973)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정서적 유대의 기원을 동물행동학적 관점과 통제체계이론을 접목시켜 설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발달심리학에서 애착이 연구자들의 큰 관심이 되는 것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영아와 어머니 또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애착형성의 결과가 후에 발달하는 정서적 안정성과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애착형성과 발달과정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적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정신분석이론(Psychoanalytic Theory)에서는 애착이 기본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성향이라고 본다. 그래서 Freud는 유아에게 편안한 상태에서 젖을 먹여주고, 만족감을 주는 행동은 높은 애착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Erikson(1968)도 영아의 수유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일이 영아기의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성장 후 아동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느끼는 신뢰감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둘째, 학습이론에서는 애착 행동을 본능적이라기보다는 학습된 행동으로 보아 어머니가 유아에게 배고픔의 해소 같은 일차적 요구를 강화물(음식, 신체적 접촉, 미소, 편안하게 해주는 것)로 해소시켜 줌으로써 이차적 강화자가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아는 어머니와의 최초의 접촉을 통해 애착을 발달시키고, 이 애착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일반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Bowlby의 동물행동학적 이론에서는 애착을 종의 보존과 생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본능적 반응의 결과로 보고 있다. 영아는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부모의 보살핌과 보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일련의 유발자극, 예를 들면 미소, 울음, 매달리기 같은 애착행동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는 이러한 자극에 반응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애착은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넷째,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영아가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지발달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는 전제하고 있다. 즉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영아는 우선 애착대상과 다른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적 변별력과 대상영속성 같은 인지 능력 획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영아기 애착은 영아가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지시하는 내적작동모델로서 그 기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형성된다고 하였다 (Flavell, Friendrichs & Hoyt, 1970; Bretherton, 1992).

다섯째, 애착 형성에 관한 기질 가설에서는 애착이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는 유아의 기질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Ainsworth(1978)는 낯선 상황에서 영아가 어머니를 안전의 기반으로 삼는 능력을 평가해서 애착의 질에 대한 개인차로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안정-애착집단은 접근추구나 접촉 유지는 있으나 회피나 저항이 없는 영아들이며, 불안-회피집단은 접근 회피가 높은 영아들이고, 불안-저항 집단은 접근 추구나 접촉 유지가 높으면서 저항반응도 높은 영아들이다.

여섯째, 내적작동모델 관점에서 Harlow와 Zimmerman(1959)은 애착발달의 주요인이 접촉위안, 즉 영아와 양육자 관계의 특성과 영아의 작동모델의 본질은

양육자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며 영아의 욕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생애 초기에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하면서 비교적 유동적이고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작동하게 되다가, 점차 애착대상과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작동모델이 구성되고 강화되면서 점차적으로 변화에 저항하게 된다(Thompson, Lamb & Estes, 1982, Egeland & Farber, 1984).

내적작동모델은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데 예측가능한 반응양식과 애착체계의 패턴을 발달시키며, 유대적인 행동방식은 모든 관계에서 개인의 감정, 사고 및 기대를 이끌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애착이 아동기와 성인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며(Ainsworth, 1969; Bowlby, 1973, 1982; Bothard & Shaver, 1994),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내적작동모델은 개인, 가족,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든 미래의 대인 관계적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렌즈이자 필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Burk & Burkhart, 2003) 크게 자신에 대한 표상과 타인 및 대인관계에 대한 표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은 최근 발달과 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나. 부모애착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두 가지 영속적인 유산이 ‘뿌리와 날개’ 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는 청년들이 세상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애착과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antrock, 2004). 전통적 애착이론에 따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은 환경의 탐색 시에 안전기지(secure bas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년 후기 동안에도 새로운 환경의 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영남, 2011).

청년기는 자율성 추구로 인한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 과정이 이루어져 가족 외의 관계가 발달하면서 영유아기의 애착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청년들이 어린 시절에 형성한 부모애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의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 역사적으로 발달심리학자들은 청년기 동안 애착보다는 자율성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가져 왔지만, 근래에는 청소년 발달에서 애착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애착과 자율성과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증가되고 있다.

Ainsworth(1978)는 애착이 연구자들에게 큰 관심이 되는 것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영아와 어머니 또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애착 형성 결과가 그 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기초가 되며, 아동기에 부모와의 애착의 질이 안정감의 원천이 되는 애착대상에 의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영아가 부모와 분리되고 다시 만났을 때 보이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어머니와 아기간의 상호작용, 즉 어머니가 아기에게 주는 자극의 양, 아기의 반응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안정성 등의 차이에 따라 3가지의 애착 유형, 안정-애착, 불안-회피, 불안-저항 유형으로 나누었다.

Bowlby(1980)가 제안한 내적작동모델의 개념에 의하면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착 관계는 자아와 세계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게 하고 그것은 이후의 관계형성의 기초가 되므로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성인기의 타인에 대한 애착양식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부터는 부모로부터 2차 분리-개별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부모와 상호작용의 빈도가 감소하지만, 애착의 중심 기능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부정적 심리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다(김수진, 2009; Belsky, 2002).

그래서 청소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여전히 부모를 애착인물로 활용하려고 하므로 성인들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청소년기라해도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Holmes, 1993; Laghi et al., 2009; Laible, 2004). 또한 청소년기에는 초기 부모와의 안정애착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정옥분 등, 2009; Mallinckrodt & Wei, 2005; Laghi et al., 2009) 이것은 청소년들이 부모를 안전기지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 얻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내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형성된 영향이다(이진숙, 2002; Belsky, 2002).

청년기 역시 부모와의 애착은 청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감에 있어 안전기로서 역할을 하며, 청년이 부모와의 애착은 심리적 적응과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Armsden & Greenberg, 1987; Papini & Roggman, 1992; McCormick & Kennedy, 1994), 청년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Nada-Raja, McGe & Stanton, 1992; Allen, Moore, Kupermine & Bell, 1998; Wilkinson & Walford, 2001).

이와 함께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년기의 애착 관계는 주된 애착 인물이었던 부모에서 보다 넓은 애착 관계인 동료와의 애착 발달로 변화한다(Fraley & Davis, 1997; Trinke & Batholomew, 1997). 이는 넓은 세계로 탐색하여 관계를 맺어가며 인간사회의 경험을 내·외적으로 넓혀가는 든든한 심리내적인 기둥 역할을 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부모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부모와 또래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평가하는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Armsden & Greenberg, 1987), 자아와 타인에 대한 관점들의 상호작용으로 애착을 측정한 낭만적 애착도구인 RQ(Relationship Questionnaire, Batholomew & Horowitz, 1991) 등이 있다.

이 중 IPPA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13~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또래 및 부모님에 대한 정서적 및 인지적 경험들을 청소년의 내적작동모델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도구는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부, 모 및 또래 애착척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 부모애착의 선행연구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옥정(1998)은 13세부터 19세 사이의 초기 청소년부터 후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성별, 연령별,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 모, 또래별 애착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또래에 비해 부모 애착의 질이 더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김효정(2009)은 대학생의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상반된 개념이 아니고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고, 강성애(2012)와 김주연(2007)은 대학생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애착 점수가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적이었고, 특히 김주연(2007)과 이윤주 등(2004)은 애착정도에 따른 사회·정서적 행동의 상관관계에서 애착이 친사회성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영래(2007)는 부모의 애착이 안정적이면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불안, 위축, 적개심, 충동성 같은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 하였다. 이는 애착의 질적 특성에 따라 정신 병리적 및 행동적인 문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수진(2000)과 양혜선(2004)은 애착과 대학생활 적응 및 하위요인에도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국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부모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한 학생들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학생들보다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동료에 대해서도 높은 애착을 형성하며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등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Lapsley, Rice 그리고 FitzGerald(1990)는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된 대학생들이 불안정하게 애착된 대학생들보다 대학생활에서 더 잘 적응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이 높으며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Simpson(1990)도 안정 애착은 청년 후기 청년들이 보다 많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데 반해 불안정 애착은 청년들이 대인관계를 맺는데 보다 많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Cotterell(199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서 부모에 대한 안정애착이 삶의 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Kenny와 Rice(1995)는 청년기에 중요한 타인들과의 애착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정서적·대인적·학업적 기능을 포함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 및 적응과 유의하게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Torquati와 Raffaelli(200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애착과 긍정적·부정적 정서의 관계에서 안정 애착의 대학생들이 불안정 애착의 대학생들보다 많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불안정 애착의 대학생들이 보다 많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위로능력

가. 자기위로능력

현대사회로 이행해 올수록 사회 환경은 복잡해져만 가고, 환경 속에서 오는 자극과 요구들, 수많은 관계와 갈등 상황 속에서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려면 타인들의 조언·충고·지지·공감과 같은 도움에만 의지하여 극복하기는 어려우며 내면이 심리적인 적응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이 어려울 때마다 타인의 도움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으므로 독립적인 적응능력, 스스로 극복해 가는 자정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기 만한 존재가 아닌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인 적응능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스스로 위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박효서, 1999).

생의 초기에 획득한 자기위로능력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위로능력으로 인하여 개인은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달래면서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로 회복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자기위로능력이 있다는 것은 심리적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대상관계 이론가인 Mahler, Pine 그리고 Bergman(1975)은 유아가 한 개인으로서 심리적 탄생을 하는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이며, 성공적인 인격의 발달은 ‘공생적인 모자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예측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지각된 타인’들의 세계에서 안정된 개인의 정체성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유아의 일반적인 발달 패턴을 ‘분리-개별화’라고 명명하고 이것은 이질적이지만 동시에 보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유아의 ‘분리-개별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분리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 타인을 구별하고, 개별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된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정립하는 것이다.

Greenberg와 Mitchell(1983)은 두 과정은 고립과 융합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여러 번의 조정 과정을 거치며, 성인으로 발달하는데 있어 중대한 결정 요인이 된다고 하여 성공적인 발달과정의 완수는 엄마와 자신이 한 몸이라는 의식에서 깨어나 별개의 개체라는 변별을 획득하며, 혹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엄마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는 대상항상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Kenberg(1976)도 개인이 타인과 관계하는 수준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발달하는가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생의 처음 단계는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을 분리하여 자신을 타인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단계이다. 다음은 보다 복잡한 관계로서 다시 자기와 타인 표상을 재결합하고자 하는데 이 때 자기와 타인의 긍정적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 특성들도 통합하여 ‘모두 좋은 것이나 모두 나쁜 것만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나 관계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과 관계에서 발견되는 불안한 요소들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유아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분리-개별화 단계를 거치면서 엄마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상을 형성하게 되며, 확고한 대상항상성을 획득한 개인은 상황이 불안하거나 긴장이 될 때에도 더 이상 실제의 대상이나 혹은 과도적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이전 대상에 대한 따뜻함과 안정감을 되살려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내적기체에 의존하는 기체의 발달 과정이다(Busch, 1974). Moser(1991)는 이 과정을 자기위로기체가 출현하는 정상적인 성장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

Kohut(1971)에 의하면 유아들은 기본적으로 공감적인 부모의 반응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공감적인 양육을 내면화(internalization)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위로능력을 기를 수 있다. 즉 자기위로능력은 공감적인 부모대상과의 상호교류를 내면화시키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획득되고 아동 초기에 관찰되는 과도적 대상이라는 외부 대상에 의존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는 것에서 점차 과도적 대상의 달래는 기능을 자기 자신에게 내면화시켜 발달하게 된다(Glassman, 1989).

Winnicott(1953)은 과도적 대상물과 과도적 현상에 대해 최초로 서술하였다. 과도적 대상(transitional object)은 아동이 어머니와의 공생단계에서부터 분리-개별화 단계로 진보하는 동안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과도적 대상이란 아동들이 담요나 곰 인형과 같이 부모나 중요한 사람에 의존하여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것에서 자기 자신의 내적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 사이의 중간에 자리한다. 이 단계에서 과도적 대상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아동은 달래는 기능을 자기 자신에게 내면화하고 자기위로능력을 발달시킨다(Glassman, 1989). 아동은 분리-개별화의 발달을 진행시키면서 세상에 대한 탐색에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홀로 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불안, 혼란, 좌절 등을 겪지만 곧 현실을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현실검증능력(ability of reality test)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이렇게 대상과의 분리와 전지전능한 힘이 상실했다는 자각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은 과도적 대상을 창조함으로써 안정을 구하게 된다.

과도적 대상은 엄마를 표상하고 유아에게 평온하고 편안한 힘을 부여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엄마라는 대상을 잃어버리는 불유쾌한 경험을 덜고 자신을 위로해주며(Surgman & Jaffe, 1989), 내부와 외부의 현실사이의 관계에서 생기게 되는 불안과 고통에서 다리를 역할과 안정을 제공해 주므로 유아는 현실에 압도당하는 것을 막고 조화롭게 기능하고 현재의 삶의 변화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Moser, 1991). 이렇게 완전한 대상항상성을 획득하기 이전에 관찰되는 과도적 대상은 자기위로능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한기연, 2003).

이러한 능력은 부모로부터 공감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양육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바로 양육기능들을 내면화하고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기대되는 능력으로써 자율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일컫는 것이다(전희정, 1999). 그러나 분리-개별화 단계를 충분히 공감적으로 거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도적 대상을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부 대상물에만 의존함으로써 스트레스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William, Jamie & Kenneth, 1997). 결국 공감적인 양육에 실패한 유아는 부모로부터 받은 공감능력을 내면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Hamilton, 1988), 부모이외의 타인에 대한 신뢰감 또한 갖추지 못하게 되어, 성인이 되어도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Grotestein, 1987).

Glassman(1989)은 자기위로능력을 두 가지로 구분 했는데 기분 나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차분하고 편안하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것과 타인이 위로해주는

것을 수용하는 것 모두를 일컫는 상호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위로의 수용능력(soothing receptivity)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본인 스스로가 위로하는 능력과 타인의 위로를 수용하는 능력을 합친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른 학자들은 이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자기위로능력이라고 일컫는다.

Moser(1991)는 자기위로능력(soothing ability)을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불유쾌한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자원을 사용하여 불유쾌한 정서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며,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는 상황에서 감정적, 심리적으로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달래는 방법을 알아서 행할 뿐 아니라 타인이 위로해 주는 것도 잘 수용할 수 있는 태도 모두를 지칭했다.

Glassman(1989)은 위로의 수용능력(soothing receptivity)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회복력(resiliency)은 기분 나쁜 일에 대해 얼마나 빨리 극복하는지를 말하며 둘째, 신체적으로 위로하기(physical soothing)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 스스로나 타인으로부터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위안을 받는 것이고 셋째, 자기노출(disclosure)은 기분 나쁜 일에 대해 타인에게 드러내고 이야기함으로써 위로받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고 넷째, 스스로 위로하기(self-soothing)는 기분이 나쁠 때 스스로 자신을 달래고 위로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위로능력의 측정도구로는 Glassman(1989)이 개발한 Self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를 박효서(1999)가 번안·수정한 측정도구로 회복력, 신체적으로 위로하기, 자기노출, 스스로 위로하기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구성은 총 42문항으로 회복력 14문항, 신체적으로 위로하기 9문항, 자기노출 10문항, 스스로 위로하기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 형식은 Likert식의 7점 척도이다.

또한 전희정(1999)도 Glassman(1989)이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신체적으로 위로하기 7문항, 회복력 4문항, 자기노출 5문항, 스스로 위로하기 13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 2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 형식은 Likert식의 5점 척도이다.

나. 자기위로능력과 대상관계이론

자기위로능력이 획득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상관계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대상관계라는 개념은 이미 Freud가 썼으나 이것을 일반이론에 체계화하지는 않았지만 Klein의 주체관계, Fairbairn의 자기의 역동적 구조, Winnicott의 자기의 출현, Bowlby의 현대의 애착이론 등 여러 학자들의 연구로 확장되면서 오늘날 상담 및 심리치료분야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자신과 타인의 감정 및 생각, 감각, 태도, 직감에 대한 개방성과 관심 등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Freud에게 있어 대상(object)이란 추동(drive)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대상(object choice)을 의미하며, 개인의 추동을 만족시키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내적 이미지를 대상관계라고 하였다. 아동이 성장하게 되면 어머니가 주위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이미지를 상상함으로써 욕구를 대리 충족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아가 성장하게 되는데, Freud의 이러한 개념화는 대상관계이론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Horner(1982)에 의하면 대상관계란 자아기능의 한 측면으로서, 개인이 외부 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본방식을 결정하는 심리 내적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대상관계는 개인이 환경 안에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나 사물을 향해 지니고 있는 개인의 행동과 태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Compton, 1995),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기능의 지속적 패턴과 그 패턴을 매개하는 인지적·정동적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Weston, 1991).

개인은 자신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환경은 주요 관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심리내적인 구조가 형성되기까지는 내재화(internalization)와 외재화(externalization)의 과정이 일어난다. 개인은 자신의 특성과 체험을 외재화하고 외부의 정보와 자극을 내재화하면서 주관적인 체험의 현실적, 상상적 내용을 심리내적인 표상(representation)으로 변화시킨다. 즉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상에 대한 표상(representation), 대상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기대, 그와 관련된 감정들과 상황맥락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면서 대상

과의 경험은 물론 그 경험에 수반하는 정서 상태까지 내면화하여 대상표상(other-representation)을 형성하고, 대상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자신에 대한 자기표상(self-representation)도 형성된다.

이는 유아가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차 어머니라는 대상에 대한 상(image)을 내면화시켜 내적 대상(internal object)을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상(image)을 형성하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적인 형상을 통해 실제외부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와 정서적 공감을 많이 하고 충분히 좋은 양육태도로 상호작용을 할수록 아이의 마음에 내면화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안정감이 더욱 커지게 된다.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초기의 발달적 결손, 즉 충분히 좋은(good-enough) 보호자의 결여, 반영의 부족, 대상표상 분열이 자기(self)의 형성 및 통합과정을 방해하여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으며, 발달 초기에 방해받을수록 병리는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Blanck & Blanck(1986)는 자기표상(self-representation)과 어머니로 대표되는 타인표상(object-representation)간의 관계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하나의 설명 체계를 대상관계이론이라고 하였다. 대상관계이론에서 말하는 대상표상(object-representation)은 생의 초기에 형성된다. 생후부터 3세까지의 심리적 발달을 연구한 Mahler(1975)는 11년간 유아의 초기 심리적 발달과 대상관계를 관찰 연구한 결과 아동은 한 개인으로서 심리적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아동이 어머니와 공생과 분리-개별화(Symbiosis, separation-individuation)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경계선 성격 장애를 포함한 정신병리의 초기 원인들을 명료화하는 데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순진, 1998).

Mahler, Pine 그리고 Bergman(1975)은 아동이 부모와 맺는 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인간의 발달단계를 정상적 자폐기(Autism), 공생기(Symbiotic) 및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단계로 구분했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인 정상적 자폐기는 생후 첫 3~4주에 걸쳐 지속된다. 이 시기에 유아는 어머니를 의식하지 못하며 생리적 긴장, 즉 배고픔을 줄이기 위해 반사적

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찾는다. 이 때 유아의 근본적 목표는 생리적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아는 심리적인 과정보다 생리학적 긴장에 더 많은 반응을 하고 엄마와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며(Klein, 1975), 정서적인 에너지는 모두 유아의 내부로 향해져 있다(Hamilton, 1988).

두 번째 단계인 공생기에서 유아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존재를 희미하게 지각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엄마가 자기의 부분인 것처럼 지각한다. 이렇게 엄마와 자기가 하나라는 느낌은 정상적 발달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Blanck & Blanck, 1986). 이러한 느낌은 유아가 기본적인 만족감을 얻는 대상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이 만족감의 경험이 자기신뢰 및 자아존중감 발달의 바탕이 된다(김순진, 1998). 또한 점차 자아기능이 성숙해가면서 관계의 싹이 트고, 사랑해주는 엄마와의 관계가 자아기능을 더 촉진시켜 준다(Ritvo & Solmit, 1958; Bell, 1970; Mahler, 1975). Winnicott(1960)은 이 공생기 동안 엄마와 유아의 순환적인 상호작용 시 엄마의 수용적인 환경(holding environment) 제공이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분리-개별화 단계는 4개의 하위단계, 즉 분화(differentiation), 연습(practicing), 재접근(화해)(reapproachment), 확립(consolidation) 단계로 구분되며 대체로 5~6개월부터 시작하여 두 살 반 혹은 세 살 경까지 지속된다.

분리-개별화 단계의 하위단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하위단계인 분화 단계는 대체로 5~9개월까지이다. 이 시기에 유아는 엄마를 자신과 한 몸이라는 의식에서 깨어나 변별을 시작하여 자신의 신체를 자각하고, 자기·어머니·다른 사람들 간의 구분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흔히 말하는 낯가림, 즉 낯선이 불안(stranger anxiety)의 시작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하위단계인 연습단계는 생후 10~14개월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유아는 실제로 운동기능이 발달하면서 엄마와 분리하여 세상에 대한 탐색을 시작한다. 이때 유아는 자신의 세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있는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enough mother)’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어머니를 떠나 탐험하면서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간다. 유아가 공생기의 애착을 더 안정적으로 보냈을수록 엄마와의 분리에 대한 불안이 덜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흥미를 보다 많이 보이게 된다(Mahler, 1975). 이 시기는 유아의 건강한 나르시즘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세 번째 하위단계인 재접근(화해)단계는 13~24개월에 해당되며 특히 유아의 운동·언어·인지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격변의 시기이다. 이러한 발달로 인해 유아는 자신이 혼자이며 초라하고 세상에서 매우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분리불안(separation anxiety)을 겪게 된다. 즉 유아는 세상에 대한 탐색을 하다가 돌연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엄마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게 된다.

Mahler(1975)는 이 단계에서 재접근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유아가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탐색을 즐기다가도 불안해지면 안전과 지지에 대한 더 큰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유아가 어머니에게 매달리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행동과 자기 과신 혹은 전능감을 번갈아 보이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이 단계의 초기에 유아는 대상(어머니)을 모두 좋기만 하거나, 모두 나쁘기 만한 존재로 보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단계의 과제는 일차적 보호자의 좋고 나쁜 상을 전체로서 통합시키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김순진, 1998).

마지막 단계인 확립단계는 2세에서 4세 사이에 일어난다. 이 네 단계 동안 부모가 유아의 두 가지 양가적인 행동 모두를 일관적이고 안정되게 받아주게 되면, 이를 통해 유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롭고 통합된 일정한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대상항상성(object constancy)이 확립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를 통해 유아는 일차적 양육자의 좋고 나쁜 상을 통합시키기 시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시켜 스스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머니의 부재 시에도 어머니의 상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획득되며, 참을성을 키우고 분리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김순진, 1998).

Kernberg(1976)는 정신 병리의 수준이 내재화된 자기와 타인표상의 분화 정도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 주요 발달 과제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자기 표상이 타인 표상과 분리되는 것이다. 이 과제에서 아이는 자신을 타인과 분리된 존재로 본다.

보다 복잡한 과제인 두 번째 과제는 자기와 타인 표상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단면들을 재결합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 아이는 자기와 타인의 긍정적, 부정적 특성들을 통합하기 시작하며 이 시기의 발달적 실패는 분열(splitting)이라는 방어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자기와 타인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은 해리

되고 자기와 타인 표상들은 모두 좋은 것 혹은 모두 나쁜 것으로 지각된다. 이러한 왜곡되고 경직된 자기와 타인 표상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핵심 특성으로 하는 성격장애 형성의 기초가 된다(Gunderson, 1984).

자기위로능력은 바로 이러한 양육기능들을 내면화하고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유아가 스스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Tolpin(1971)은 유아가 어머니로부터 건강히 분리되어 자율성을 갖게 되고, 점차 자아기능이 발달해 감에 따라 과도적 대상으로부터 위로받는 기능은 없어지고 아이 스스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내면화된다고 하였다.

심리적 발달단계를 요약하면, 유아는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분리-개별화 단계를 거쳐 엄마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상을 형성하게 되며, 비로소 대상항상성(object constancy)을 획득하게 된다. 대상항상성을 형성하면 불안을 느낄 때 더 이상 실제의 대상, 즉 과도적 대상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불안한 상태 속에서도 예전의 대상에 대한 따뜻함과 안정감을 되살려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많은 이론가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외부 대상물에 의존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될 때, 과도적 대상에 의존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 대신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내적인 기체에 의존하게 된다고 보았다(Stevenson, 1954; Greenacre, 1969; Busch, 1974; Sarnoff, 1976; Sugarman & Jaffe, 1989).

Moser(1991)는 자기위로라는 기체의 출현을 성장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심리적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다. 자기위로능력의 선행연구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위로 능력 중 자기노출 수준은 애착수준과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두정일, 1997), 자기위로능력과 불안수준은 부적 상관이 있다(김재호, 1988). 또한 우울 및 불안을 예측할 수 있고(전희정, 1999),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는 부적 상관이 있으며(최명구, 2003), 청소년의 외로움의 경험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효과가 있다고 하였다(김경아, 2008).

박혜정(2010)은 자기위로능력이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지연 등(2010)은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과 낙관성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효서(1999)는 자기위로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추구를 많이 사용하고, 자기위로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서중심 대처방식과 회피적 대응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다. 고소희(2000)도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안정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가지게 되어 자기노출 능력이 높다고 하였으며, 한기연(2003)은 대학생들의 개인의 사적 자의식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관계성과 자기위로능력과의 상관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경희(2011)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위험요인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을 포함한 대처양식이 매개효과가 있으며,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로 인한 갈등의 위험요인이 자기위로능력을 포함한 매개변인을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정선(2011)은 대학생들의 부모화, 우울, 신체화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은 부적상관, 부모화가 우울과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기위로능력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설동호(2011)도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자기위로능력의 관계에서 성별과, 성격특성에 따라 자기위로능력의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박지현, 이명조(2012)는 대학생이 지각한 어린 시절 애정적 양육태도의 경험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비록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위로능력을 함양시킨다면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상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김현정(2003)은 회복력과 자기노출이 역전이 관리능력의 자기통합과 상관을 보인다고 밝히면서, 좋지 않은 일을 빨리 극복하고 타인에게 드러내어 위로받는 상담자일수록 안정되고 건강하다고 설명하였고, 박정해(2006)는 상담자의 자기위로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소진이 덜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조은정(2009)은 놀이치료자의 자기위로능력의 상담자 발달 수준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내적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샘(2012)은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이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완충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김민선(2013)은 성폭력상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의 수준,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의 감소는 자신을 개방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여, 스스로 위로하거나 타인에게 위로받는 기능을 적절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자들의 자기위로능력 함양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임상장면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데, 1960년대 이후 대상관계이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경계선 성격장애나 자기애적 성격장애, 섭식장애 등과 같은 치료적 예후가 좋지 않은 비교적 심각한 성격장애 전반에 걸쳐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전희정, 1999).

Linda(1987)는 8-9세 아동들의 대상항상성과 분리불안의 관계에서 대상항상성이 낮은 아이들의 불안 수준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불안 수준보다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Lorrie(1998)는 청소년들의 대상관계 수준과 우울의 관계 연구에서는 우울한 청소년일수록 긍정적 애착에 대한 대상관계 기능이 낮았으며, 애착수준 또한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Amstrong과 Roth(1989)는 분리-개별화 모델에 근거하여 섭식장애의 원인과 경과에 대한 연구에서 신경성 식욕부진(anorexia)여성들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라는 자기효능감을 위해 필사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였다.

Strober와 Humphrey(1987), Smolak와 Levine(1993)은 신경성 대식증(bulimia)여성들은 타인으로부터 자신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예전에 어머니에게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도 유용한 방법으로 음식물을 이용한다는 하였다. 또한 Beth(1993)도 섭식장애가 있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기위로능력과 자기 정체감 수준을 측정한 결과 이들은 두 가지 기능 수준이 모두 낮은 결과를 보였다.

Gilbert와 Procter(2006)는 수치심과 지나친 자기비난을 하는 환자들에게 자기위로능력이 중요한 치료요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최근에는 중독환자들의 예후에도 자기위로가 중요하다는 연구(Kissen, 2009)와 6개월 된 유아도 자기위로를 통해 스트레스를 다룬다(Crockenber & Leerkes,

2004)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자기노출수준은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가 나왔다(Mikulincer & Nachshon, 1991; Shaver & Hanzan, 1988).

이렇게 대다수의 연구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내면화된 자기위로 능력 기제가 부족하여 다른 대상물, 즉 음식물과 같은 것에 의존하여 위로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한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을 대상으로 내면화된 스스로 위로하는 기능의 전 단계인 과도적 대상물의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입원환자들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과도적 대상물인 곰인형이나 담요 같은 것을 병원에 가지고 온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분리-개별화 단계, 특히 재접근 단계에서의 문제로 인해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은 분리불안의 상황에서 불안을 줄이고 스스로 위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지지해 준다 (William et al., 1997).

3. 심리적 독립

가.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separation)

인간 발달에 있어서 한 개인의 자율성은 영아기에 부모와 맺는 애착관계로부터 시작되며, 영·유아기의 동일시를 통해 초자아를 형성하고, 나아가 청년기의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며, 이러한 자기이해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개별화 되어간다(Damoan, 1983).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청소년기 이후 부모애착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주요 관련 변인으로(Kenny, 1994; Lopez, 1992), Hoffman(1984)이 심리적 독립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는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포함하는 시기로 발달과업 중 하나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이전까지 지속되어 오던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동일시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기초를 쌓아가게 된다(선상화, 2009).

그러므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청년기의 중심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Bloom, 1980), 자녀가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결속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자율감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Josselson, 1988). 즉 심리적 독립은 심리내적인 과정인 동시에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부모로부터 탈피해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는 발달과업을 이룸을 의미한다. 이때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통해 연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정은희, 1992), 청소년 후기에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역할이다(이지인, 2007; Lapsley et al., 1989).

특히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 초기까지는 부모 및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을

가족으로부터의 점진적 독립 및 자율적인 친구 선택을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보고 있다(Havighurst, 1972, Mckinney, Fitzgerald & Strommen, 1982). 특히 아동기 이후부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청소년시기에는 부모로부터의 영향 하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자율성을 추구한다(Josselson, 1988).

이때 자율성이란 독립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진정한 독립을 성취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정은희, 1992),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의 추구는 부모와의 애착과 반대선상에서 대립하는 맥락으로 보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하며, 개인은 유아기에 형성한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점차 성장하면서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지각하기 시작하며 나아가 자율성과 개별성을 지각·발전시켜 나가게 된다(심지연, 2013).

이러한 심리적 독립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적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정신역동적 접근(Psychodynamic Approach)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간의 자율성 발달과정을 분리-개별화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분리-개별화는 자녀가 자신을 어머니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해 독립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장태자, 2004).

이러한 인간의 분리-개별화 과정을 크게 유아기의 1차 분리-개별화와 청년기 이후의 2차 분리-개별화로 구분하였다. Mahler(1975)는 유아가 어머니와의 공생적 관계에서 분리되어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지각하고 보다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1차 분리-개별화 과정을 ‘심리적 탄생(Psychological Birth)’이라 명명하면서 일련의 발달 단계를 주장하였다.

Blos(1967)는 이러한 개념을 청년 발달에 적용하여 독립된 존재로서 자아의 재구성이 일어나는 시기를 2차 분리-개별화라고 하였으며, Mahler(1975)의 일차적 개별화에 물리적 독립을 더하여, 자아의 적응체계 형성을 청소년기 발달의 주요 지표로 간주하며, 청소년기 발달을 이차적 개별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차적 개별화는 청소년기의 자아가 부모로부터 이탈해가는 과정으로 유아기 때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초월하여 자의식을 재조직하려는 시도이며 청소년기 동안 부모에 대한 의존관계를 거부하고 부모의 내재화된 영향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되어 스스로 신체 및 성적 변화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된 자아의 적응체계를

확립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Blos(1979)는 분리-개별화의 시기와 영향력은 각 개인마다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1차와 2차 분리-개별화에 대한 성공적 해결은 인간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심리적 독립을 경험함으로써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부모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정서적 독립을 포함하며, 이와 함께 부모와의 현재 관계도 변화한다. 따라서 청년기의 기본적인 과업은 내재화된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이탈하는 것과 개인적인 발달의 과정을 계획해 나가는 것으로 보았으며, 건강한 적응을 위해 초기 청년기와 후기 청년기 동안의 심리적 독립과 개체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선상화, 2009).

Hoffman(1984)은 정신분석적인 이론을 토대로 유아가 가지는 자율성의 욕구와 부모의 보호로부터 자유하려는 청년기 욕구를 연결시켜 심리적 독립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그는 건강한 적응을 이루기 위해 자신 스스로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심리사회학적 발달 이론에서 Erikson(1968)은 청년기에 자아정체감이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시기의 위기는 ‘기회’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결코 ‘성취’된 것이나 ‘확립’된 것도 아니고, ‘정지’된 것도 ‘불변’적인 것도 아니며, 사회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정되는 자아현실감이라 하면서, 자아정체감의 문제는 평생의 관심사로 남으며, 대학신입생이 집을 떠나 처음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와 같이 주된 역할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에 대한 재정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개인적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은 아동기와 성인기를 심리적으로 연결되면서 청년기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는 것으로 청년기의 새로운 정체감의 형성과 획득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므로, Erikson은 정체감을 확립하는데 있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심리적 독립을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단계로 보았다.

셋째, Havighurst(1972)는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 초기까지 부모 및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을 심리적 독립으로 보았으며, 특히 개인적 의사결정, 문제해결, 감정조절에 관한 자율성과 능력을 나타내야 할 시기인 청소년기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향후 발달의 기초가 되기에 청소년이 직면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라고 하였다. Mckinney, Fitzgerald & Strommen(1982)도 가족으로부터의 점진적 독립과 스스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을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에 완수해야 할 발달과업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넷째, Bowen(1976)과 Minuchin(1974)은 가족체계이론에서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구별하기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에 속해 있다는 가족친밀감(connectedness)의 느낌을 유지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적응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분리감과 친밀감 모두 중요하게 보았다. Bowen은 자아분화를 독립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개별화와 관계 속에서 인정과 소속감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질화의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있다. 즉 가족체계이론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동시에 일어나는 분리-개별화 과정 모두에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두 과정 간에는 상호의존적이며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Lopez & Gover, 1993).

Josselson(1980, 1988)은 청년기의 개별화 과정에서 반드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희생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성(connectedness)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청소년들이 부모와 안전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 있으면 부모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서 완전한 독립된 개체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Hoffman(1984)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심리적 독립을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과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정체감 획득은 적응을 향한 개인의 욕구라고 간주하며 청소년 후기의 심리적 독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말하였다. 그는 유아기의 분리-개별화 과정에 대한 Mahler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인 다중차원적인 구인으로서 4가지 측면으로 정의하여 심리적 독립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개발하였다.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 FI)은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자신의 일을 실행할 줄 아는 개인적 능력 정도를 가리키며 행동적인 독립을 말한다. 교우관계나 여가 및 일처리를 포함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 AI)은 자신이 부모와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스스로의 이미지와 자기 자신만의 신념, 가치, 의견 등을 지닐 수 있는 자신만의 태도를 말한다. 자기와 다른 사람의 정신적 표상에 대한 유아의 구별은 청소년기 동안에 청소년들과 그들 부모간의 태도, 가치, 믿음의 구별에 반영될 수 있으며,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유일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자신의 영상으로 정의 되어 자신의 믿음, 가치,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 EI)은 부모로부터의 친밀감, 인정, 정서적지지, 나아가 동질성을 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즉 부모로부터의 인정받길 원하며 과도한 친밀감과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한다.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 CI)은 부모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 분노 등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불만, 불신감, 책임감,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얽매이지 않은 것을 말한다.

Blos(1979)는 심리적 독립 중에서 기능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은 유아기의 분리-개별화 과제에서 어머니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을 분리된 개인으로 보려는 이차적 개별화가 청소년기에 어떤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은 청소년기 이후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심리적 독립(Blos, 1979)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Lapsley, Rice 그리고 FitzGerald(1990)의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태도적 독립,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은 ‘부모로부터의 독립(independent from parents)’이며, 갈등적 독립은 ‘독립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positive separation feeling)’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Baker(1989)와 Rice(1992)는 하위척도인 갈등적 독립이 다른 하위척도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밝힘으로써 이를

‘심리적 독립’으로 보는 관점을 제안했으며, Baker & Siryk(1989)는 갈등적 독립 척도가 다른 하위척도와 상관되지 않으므로 심리적 독립 자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으며, Lopez, Campbell 그리고 Watkins(1988)도 갈등적 독립이 심리적 독립을 예측하는 주요 하위요인으로 독자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Bios(1979)도 청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증오, 의존하고 싶은 욕망과 독립하고 싶은 욕망, 현실과 이상 가운데 갈등을 겪으며 이러한 양가감정을 경험하는 시기를 통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Sullivan과 Sullivan(1980)은 청년기의 분리과정은 부모로부터 자신을 점차 분화시켜가는 가운데 자기정의를 획득하고,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해 가는 통합적인 역할을 하므로 청년의 심리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Josselson(1988)는 Mahler가 언급한 영아의 분리된 개체로서의 인지적 자각 과정이 제1차 분리-개별화 과정이라면, 청소년기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제2차 분리-개별화 과정이라며 청소년기의 독립은 분화(differentiation), 실행(practice), 회복(rapprochement), 견고화(consolidation)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한 개별화와 친밀성이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별화는 친밀성의 맥락에서 발달되는 것으로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지닌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심지연(2013)도 청년들이 지각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의 정서적인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와의 진정한 애착관계의 유지와 더 나아가 갈등의 해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관계에서 벗어나 사고와 행동에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는 청소년기 이후의 가장 핵심적인 발달과정의 하나이며, 청년기 이후의 삶에 있어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 심리적 독립의 선행연구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청년기에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분리-개별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생후 첫 3년간에 집중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청년기의 심리적 독립이나 자율성의 발달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강한 적응과의 관련성을 강조(Blos, 1979; Schafer, 1973)하는 것이었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부모애착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윤승경, 1989; 장휘숙, 2002), 대학생들의 적응에 긍정적이고(정은희, 1992; 한미선, 1987; 한혜준, 1994), 진로 의사결정을 잘하며(김순정, 2000; 김은진, 2001; 권용호, 2002; 맹영임, 2002), 진로의식성숙이 높다고 하였다(심지연, 2013). 또한 하위 변인 중 갈등적 독립이 다른 하위영역들과 관련성이 적고 청소년 적응의 여러 면과 가장 일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진, 천성문, 2001; 신지영, 2000).

국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독립은 성공적인 개인의 적응 및 이성관계의 적응과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갈등적 독립이 높을 시에 개인적 적응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Hoffman, 1984),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정서적 문제는 낮게 나타나고(Baker & Shryk, 1984), 사회적 적응이 높고(Hoffman & Weiss, 1987), 신체 및 정서적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으며(Cole, Lapsley & Rice, 1990), 자아정체감이 발달하였고(Frank, Pirsh, & Wright, 1990), 진로의사결정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lustein et al., 1991).

Schwartz와 Buboltz(2004)는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성인기의 성격형성과 사회적 관계의 건강여부를 결정하고, 적응적인 발달에 기여하며, 청년기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및 행동으로(Hoffman, 1974; Thornburg, 1982, Hoffman & Weiss, 1987) 청년기의 자녀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심리적 독립에 관한 다차원적인 연구들 가운데 또 하나의 일관된 결과는 하위 요인 중 갈등적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과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있다.(정은희 1992; Lopez et al., 1988; Baker & Siryk, 1989;

Rice, 1992). 갈등적 독립은 대학생의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 적응과 정적관계를 가지며, 정서적 문제와는 부적으로 관련된다고 하였다(Hoffman & Weiss, 1987). 그 밖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들에게서는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높고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독립이 낮은 청년들이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보고 하였다(권용호, 2002; 김정애, 1988).

4. 자아탄력성

가. 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은 기존의 탄력적인 특성을 가진 물질을 설명하는 용어인(Olsson et al, 2003) 라틴어의 ‘salire’ 와 ‘resilire’ 에서 파생된 resilience 또는 Resiliency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늘어나 있거나 압축된 상태에서 다시 튀어 오르거나 복원하는 능력 혹은 강점과 정신이 회복능력, 질병, 변화, 혹은 불행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하는 능력” 으로 정의되고 있다(양옥경 외, 2004).

1970년대 빈곤이나 가정불화, 정신 병력을 가진 부모 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역경을 극복하고 심리 사회적으로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며 발달해 가는 개인들에 관한 연구들에서부터 나온 개념이다.

Garmezy와 Rutter(1985)는 환경적 역경과 스트레스 조건하에서 놀랍게 잘 기능하며 스트레스에 저항적인 어린이들을 발견하면서 ‘탄력성’ 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되었으며, 인간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과 심리적 문제를 탐색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던 결핍-지향적(deficit-oriented) 이고 병리-지향적(pathology-oriented)인 기존 연구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하였다.

탄력성은 긍정심리학의 중요 배경으로 언급되어지면서 1990년 이후 부각되기 시작하여(Craig, Lyndal & Jane, 2003), 지금까지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되면서 연구자의 관점과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달해 오고 있다.

그 하나는 탄력성을 고위험과 심각한 역경에의 노출을 전제로 하며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고, 탄력성의 발현을 돕거나 저해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변인중심적 관점(factor-focused approach)으로 차원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의 방법으로 위험요인, 보호요인, 적응결과에 대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모델(Masten, 2001)이다.

다른 하나는 탄력성을 상황에 따른 자아통제수준의 조절능력에 초점을 둔 개인의 성격유형으로 보고, 탄력성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검토하는 인물 중심적 관점(person-focused approach)으로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탄력성과 구별하여 자아탄력성이라고 하였다.

변인중심적 관점(factor-focused approach)에서 탄력성은 높은 위험상태에 처해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Garmezy, 1993), 개인의 적응을 위협하는 외적 자극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적응을 유지하는 기회로 전환하는 기제(Rutter, 1990), 고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량을 유지하며,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외상으로부터 회복하는 것(Fraser et al., 1999), 발달이나 적응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특징지어지는 현상(Masten, 2001)등으로 정의 된다.

Stewer, Reid 그리고 Mangham(1997)은 ‘탄력성은 개인이 어떤 특성들과 그들의 더 넓은 환경들 사이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조명될 수 있으며, 개인이 처한 스트레스와 대처능력 사이의 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복합적인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부터 나오는 위험요인들과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거나 개선하는 보호요인들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탄력성은 공통적으로 고위험 조건에의 노출을 전제로 생애맥락에 의존하는 발달적 과정과 역동적 과정을 내포하며(양옥경 등, 2006), 개인-환경 상호작용 맥락에서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변화하고 발달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보고 있으며(Egeland et al., 1993), 개인의 탄력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과 탄력성을 발달시키는 보호요인을 분석하여 요인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여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의 출현을 예방하고 탄력성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의 개발과 증대에 관심을 갖는다(Werner & Smith, 1982).

탄력성의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은 위험사항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켜 문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으로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김택호, 2004), 위험요인

(risk factor)은 단순한 스트레스원이라기 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변인들로 갑작스러운 사망, 정신병리, 예기치 못한 사고, 범죄행동, 약물중독, 학업중단과 같은 변인들이 포함되며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위험상황이나 역경들을 가리키며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된다면 개인이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다(김현경, 2003). 국내에서 ‘탄력성’, ‘적응유연성’이라는 용어는 주로 변인중심적 접근 측면에서 ‘resilience’를 보는 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중심적 관점(person-focused approach)에서는 탄력성을 성격의 한 유형으로 보고 개인의 자아통제수준과 관련지어 탄력성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차이를 검증한다. 인물중심적 관점에서 나온 개념인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초기 성격구조로 개념화되고 역동적 성격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Block, 1980).

Block(1982)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한 개인이 탄력적이기 위해서는 자아가 ‘현실원리’에 따라 적절한 자아통제를 이룰 수 있을 때 탄력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자아통제(ego-control)란 자아의 여러 기능 중에서 일반적인 충동조절에 강조를 둔 개념이다. 또한 Klohnen(1996)은 자아탄력성을 탄력성의 개인적 차원으로 보고 내·외적 긴장상황에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일반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Block과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을 개인이 반드시 역경을 경험했다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며, 자아의 긴장인내 수준과 충동통제를 상황에 따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자아의 조절능력을 의미하는 메타적인 능력을 의미함으로써, 단순히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을 포괄하는 더 큰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Block(1980)은 이를 탄력성과 구별하여 ‘resilience’에 ‘ego’라는 접두사를 붙여 ‘ego-resili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의 정의에 대해서 Block과 Block(1980)은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스트레스나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성격유형이라 하였으며, Block과 Kremen(1996)은 스

트레스를 견뎌내는 저항능력인 탄력성보다는 긴장 이내의 수준과 충동 통제를 상황에 따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라 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을 박은희(1996)는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에 대한 풍부한 적응능력이라고 보았으며, 김대권(2004)은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내적, 외적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이라고 하였다. 김현주(2005)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적응에 관련된 성격자원으로서 내적, 외적 긴장원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은석, 김성희(2012)는 문제 상황을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자아통제력을 발휘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메타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최근 탄력성의 연구경향 중 하나는 탄력성이 한 개인에게 처음부터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Oetter, 1999, 2012 이연실 재인용).

Luthar와 Cicchetti(2000)는 ‘resilience’ 를 성격특성으로 간주할 경우 그러한 성격특성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게 됨을 지적하면서 탄력성을 성격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Noam과 Hermann(2002) 역시 진정한 의미의 탄력성이란 특성과 요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인 맥락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경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발달해 가는 역동적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Rutter(1985)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은 상대적이며,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 작용 결과이며, 고정된 질이 아니라 맥락에 의존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을 두 가지 중요한 차원으로 보면 변인중심적 접근에서 나온 탄력성은 역동적인 발달과정을 지칭하며, 인물중심적 접근에서 나온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성격적 특성을 의미한다. 탄력성이 반드시 고위험이나 역경,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의 노출을 전제로 하는데 반해 자아탄력성은 정의상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변인중심적 접근에서 탄력성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탄력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과 탄력성을 발달시키는 보호요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예측변인과 적응결과

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통계적 검증력을 최대화하고 중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Masten, 2001). 인물중심적 접근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인물 간 비교를 할 수 있으나, 탄력성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지 못한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는 차이점이 있다.

나.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Block(1980)이 처음으로 ‘resilience’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자아, 특히 상황에 따라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여 설명하면서 ‘resilience’에 ‘ego’를 덧붙여 자아탄력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즉 한 개인이 탄력적이기 위해서는 자아가 ‘현실원리’에 따라 적절한 자아통제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아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자아통제를 이룰 수 있을 때 탄력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lock과 Block(1980)은 중단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의 특성을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스트레스 대처능력 및 문제해결 전략 소유), 성격 안정성(덜 불안해하고 덜 의심하고 덜 뿌루통함), 자신감(자기 확신과 자기수용), 학교와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융통성 있는 적응(창조성과 새로움 추구), 또래관계(정서표현의 적절성과 공감능력), 인지능력(유능성, 유창성, 영리함) 6가지로 제시하면서 자아탄력성을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이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을 넘어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라 하였다.

Klohn(1996)도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자신감 있는 낙천성, 생산적인 활동성, 대인관계의 통찰력과 따뜻함, 능숙한 자기표현 기술 등이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삶에 대한 자신감, 통제감, 긍정성 등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아탄력성이 삶에서의 전반적인 영역, 직업과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 적응뿐 만 아

니라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Block과 Kremen(1996)은 당면한 상황과 대처를 위해 자아통제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자아의 동기 조절 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환경적인 변화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따라 자아를 과소 통제하거나 과다 통제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능력이라고 하면서 ‘자아통제는 꼭 필요한 만큼만 과다 통제적이 되고 가능한 과소 통제적이 되는 것이 인간의 목표’ 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자아탄력성을 자아통제(ego-control)와 관련시켜 볼 때, 자아통제력이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이익이 되거나 적응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아통제력의 수준이 높고 낮은 것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이 얼마나 적응적인 조절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Letzring, Block & Funder, 2005; Block & Block, 2006).

따라서 한 개인의 특징적인 자아통제의 결과가 적응적일지 부적응적일지는 자아통제성의 수준 그 자체가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따라 일시적으로 통제의 수준을 더 높이거나 더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자아탄력성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측면에서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메타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Lazarus(2000)와 Masten(2001)도 자아탄력성은 위험요소가 높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이들을 보호해 주는 어떤 개인적, 환경적 보호요소에 의해 강인하고 탄력있게 적응하고 발달해 나가도록 도우며 또한 몇몇 사람들에게게서만이 나타나는 특수한 속성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고위험환경,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적응기제라 하였다.

Block과 Block(2006)은 자아탄력성을 ‘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일상적인 반응 혹은 지각 경향성에서 벗어나, 현재 작용하는 상황적 압력과 항상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삶에서의 상황적 요구에 대해 적절히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동적인 능력’ 으로 정의한다.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적응을 추구하는 가운데 다양한 인지적·정서적 절차들을 사용할 수 있고,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 모두를 행할 수 있으며, 반추적이지 않으면서 신중할 수 있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상황이 허락을 하는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나, 상대적으로 자아가 취약한 사람은 적응적인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동요되거나 변화에 대처함에 있어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직면한 요구 앞에서 불안해지고, 또 외상적 경험으로부터 회복을 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게 된다.

자아탄력성은 한 개인이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적 한계 내에서 일시적으로 행동적 통제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것, 주의의 폭을 좁히거나 넓히는 것, 자아를 위해 퇴보를 하거나 진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가능케 한다(Huey & Weisz, 1997; Block & Block, 2006).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문제 상황을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자아통제력을 발휘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메타능력(이은석, 김성희, 2012)이라 정의한다. 하위변인은 긍정적 사고, 정서조절, 목표지향성, 의사소통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 사고는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 자기 자신 및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인지할 있는 능력이며, 정서조절은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일어나는 비효과적인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며, 목표지향성은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기화하는 능력이며, 의사소통 방식은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타인과 적절히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결국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내·외적 요소를 모두 포함되어 대처와 적응에 관련된 자원으로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의 정의나 구성 요소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된 만큼 측정도구도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ER)는 체계의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환경적 맥락이 요구하는 기능인 자기통제수준을 조정하는 역동적인 능력인 자아탄력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5가지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으로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형식은 Likert식의 5점 척도이다.

박현진(1997)은 Klohen(1966)이 보완한 척도를 변안하여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ER)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형식은 Likert식의 5점 척도이다.

박은희(1997)는 O' connell-Higgins(1983)가 밝힌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의 특징과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바탕으로 자아탄력성 구성요소를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5가지로 분석한 후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형식은 Likert식의 5점 척도이다.

이혜리와 조한익(2005)은 개인 내적 특질 24문항과 외적 보호요인 24문항으로 한국 청소년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개인 내적 특질의 4가지 하위요인인 지적차원, 정서적 차원, 의지적 차원, 영성적 차원과 외적 보호요인의 4가지 하위요인인 학교 차원, 가정 차원, 지역사회 차원, 또래 차원의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형식은 Likert식의 5점 척도이다.

이은석, 김성희(2012)는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하위요인을 긍정적 사고, 정서조절, 목표지향성, 의사소통 방식으로 총 3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형식은 Likert식의 5점 척도이다.

다. 대학생활과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은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의 여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의 통제되고 수동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정체성 확립과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지체시켜 오다가(이은희, 2004), 대학생활로 들어오면서 고등학교까지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대학생활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되고, 새로운 사상을 접하면서 자신의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발달의 국면으로 이끌게 된다. 아울러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많은 자율과 함께 책임이 주어지는 환경으로의 적응을 요구받게 되는데, 비전을 갖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을 때는 특별한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학생 시기는 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청년후기에 속하며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된 성인이 아닌 과도기에 있으며 변화와 적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고등학교까지의 익숙하여왔던 타율적인 삶에서 자율적인 삶으로 이동하면서 가치관의 확대, 삶의 질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심리적 재탄생’이 함께 나타나는 시기이다. 즉 다면적이고, 다변화적이며, 매혹적이고, 자극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점으로(Muuss, 1996)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스스로 결정해야 할 순간이 많이 찾아오는 대학생 시기는 도전, 변화, 기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응을 개인과 주변 환경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임을 감안할 때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과 대학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처하는 태도와 양상,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게 되며,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대학생이 새롭게 직면하게 되는 학업 및 대인관계, 심리·정서적 측면 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및 소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Baker & Siryk, 1984). 이런 대학생활의 성공적 적응은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후의 사회 환경에도 보다 원만하게 적응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이경립, 박재국, 2007).

그러나 대학생활에서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개인 내외의 환경과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며,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이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성경, 2003)는 대학생들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탄력적인 특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치할 수 있다.

이은석, 김성희(2012)는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문제 상황을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자아통제력을 발휘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메타능력으로 정의하며, 하위요인을 긍정적 사고, 정서조절, 목표지향성, 의사소통 방식으로 구성하여 32문항의 척도개발 및 타당화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 사고는 삶에 대하여 낙관적, 긍정적이며 활력적인 관점으로 희망, 긍정적인 주관적 예견 반영,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인식,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며 자아가 탄력적일수록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적으므로 갈등상황에서 경미한 수준의 스트레스만 경험하여 갈등상황을 벗어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였다.

목표지향성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삶의 대한 목적의식과 목표추구, 자기성취에 대한 만족감, 자신의 삶의 조절력을

포함하며,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정서조절은 문제 상황을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비효과적인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으로 충동성 조절, 감정조절, 인내 등을 포함하며 자신의 전반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의사소통 방식은 대인간 온정 및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인 관점의 통찰력으로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이 요구로 타인과 적절히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보라, 김미애, 이기학(2005)은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성인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Cobb(1976)도 급격한 환경변화의 노출과 더불어 자아정체감 확립과 성인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과제가 집중되는 시기에 상황적 요구에 알맞게 융통성 있는 행동과 문제 해결 전략을 동원할 수 있는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교생활적응에서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은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음을(성선진, 2010) 고려해 볼 때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 자아탄력성이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라. 자아탄력성의 선행연구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 긍정적 정서 및 대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스트레스 대처, 적응, 자기조절 등에 차이를 보이는 연구는 많으며(한호성, 2007; 조은향, 2009; 김초록, 2010),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초등학생(오영숙, 2011; 박선희, 2012), 중학생(김미향, 2011), 대학생(이은석, 2010) 등으로 연구 대상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볼 때 자아탄력성이 특정한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구형모, 2000; 김주연, 2007; 강성애, 2012), 대학생들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대인간 문제해결력과의 정적 관계에 있으며(김희숙, 2013), 휘트니스 참가 대학생들의 우울증과 음주문제는 자아탄력성과 부적 관계에 있다(김민석, 2011).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결정 자율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으며(최금란, 2012), 생활스트레스와 내면화 문제는 자아탄력성과 부적 관계에 있고(강미진, 2012; 이하나 등, 2006; 장은옥 등, 2010; 김수안, 민경환, 2011),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최지현, 2009), 대학생들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한영민, 2009). 또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강명희, 2013; 박원주, 2011; 성선진, 2010; 심지연, 2013; 이견성, 2009).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연구들의 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연구가 많다. 탄력성은 안정적 애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Sroufe et al., 1993), 만족지연을 도와주고(Funder & Block, 1989), 낙관적 사고의 사용(Kumpfer, 1999), 경험에 대한 높은 개방성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식과도 관계가 있다(Klohn, 1996). 그리고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힘든 상황에서조차 유머를 사용하는 삶의 방식(Werner & Smith, 1992)을 예견하기도 한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휘숙, 2002; 허정선, 현명호, 2005; Shaver & Brennan, 1992; Kerns & Steven, 1996; Kobak & Sreery, 1988).

또한 대학생들의 통합된 수행능력과 적응적인 융통성 등 개인적, 인지적 영역에서 문제해결 책략의 자원으로서의 자아탄력성은 적응적이고 효율적인 지적기능과의 관련성이나 불확실한 조건하에서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Compas, 1987; Work, Cowen, Parker & Wyman, 1990).

5.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가.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 관계를 뜻하며(Bowlby, 1958; Ainsworth et al., 1978), 근본적으로 선택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극히 소수의 제한된 대상에 대해서 형성되며, 애착이 형성된 대상에 대해서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근접해 있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며, 대상과의 지속적인 애착행동을 하게 된다.

주로 애착에 관한 연구는 영아 및 유아 발달에 있어 부모에 대한 애착의 역할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애착관계의 중요성은 영·유아기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Ainsworth, 1988)고 하였으며, 이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청년기 이후의 발달과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는 내적작동모델 설명으로 청년기 이후의 애착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근래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애착을 청년 발달과 적응에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다(고영남, 2011).

인생 초기에 형성된 애착 안정성(security)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발달적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지니게 하며(Kobak & Sreery, 1988), 청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감에 있어 안전기로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기 발달과 적응의 실마리를 애착관계에서 얻을 수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백지숙, 2000). 또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애착과 탄력성 연구에서 안정애착 유아는 발달적 과제를 더 적응적으로 해결해 나간 반면, 불안정 애착유아는 후기 아동기에 의존성이 증가했고,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낮으며 과제해결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휘숙, 2002; 허정선, 현명호, 2005; Shaver & Brennan, 1992; Carlsib & Shulman, 1993; Kerns & Steven, 1996; Kobak & Sreery, 1988).

강성애(2012)와 김주연(2007)은 대학생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애착 점수가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적이었고, 애착과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는 선행연구(유성경 등, 2004)와 같이 개인 내적인 변인인 자아탄력성을 애착과 적응과의 관계에서 중재변인의 관점에서 연구들이 증가되고 있다.

나. 자기위로능력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생애 초기에 획득한 자기위로능력(soothing ability)은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불유쾌한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자원을 사용하여 불유쾌한 정서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Glassman(1989)은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는 상황에서 감정적, 심리적으로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달래는 방법을 알아서 행하며 타인이 위로해 주는 것도 잘 수용할 수 있는 태도 모두를 지칭했는데 이런 점에서 자기위로능력은 자아탄력성과 일맥상통한다. 자아가 ‘현실원리’에 따라 적절한 자아통제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합리적으로 그 상황에 인지적, 정서적 조절능력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아의 효율적인 적응을 위한 심리내적인 역동적인 능력인 자아탄력성이 요구되고 있다.

Kerr과 Bowen(1988)은 어느 정도 높은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생각과 행동의 선택 범위를 넓힘으로써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더욱 발달시킬 수 있고, 감정적으로 강렬한 상황의 불편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건이며 이것은 자기위로능력(self-soothing)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Lazarus와 Folkman(1991)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요구에 대한 반응인 대처방식에는 자기위로능력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을 안정시키면서 스스로를 수용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자기위로능력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등과 같은 스트레스에 대응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따라 일시적으로 통제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Schnarch(1997)은 자기위로능력은 자아의 두 가지 핵심 도전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외부의 압력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외부의 압력과는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을 안정시키면서 스스로를 수용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박효서(1999)는 자기위로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추구를 많이 사용하고, 자기위로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서중심 대처방식과 회피적 대응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현, 이명조(2012)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위기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내적 자원을 사용하여 불안을 줄이고 이를 극복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역경 속에서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는데, 이는 스스로 위로하는 능력과 자아탄력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처기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위로능력과 자아탄력성은 한 인간의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려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며 공통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초기 대상관계와 개인의 성격 및 적응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가장 대표적인 변인인 애착 관련 연구 중에는 발달 초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유형이 그 이후 시기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의 질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경로로 성인애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Cook, 2000; Overbeek, Vollebergh, Engels & Meeus, 2003)은 유아기 이후 발달 경로를 거치면서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화진, 서영석(2010)이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분리-개별화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애착의 세대 간 전수가 선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여하는 주요 변인들 중 심리적 독립의 중요시되고 있다.

Hoffman(1984)은 성인의 건강한 적응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으며, 특히 청년기의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은 타인에 대한 불신, 친밀한 관계에서의 거부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부적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는 초기 성인들이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적인 행동능력의 발달은 심리적 성숙, 자아의 자율성 발달, 최적의 적응능력의 발달, 안정적 애착 등을 촉진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송순, 박효인, 2006; Berman & Sperling, 1994). 이것은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가 심리적 독립은 물론 탄력적인 적응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선영(2010)은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부모와의 유대가 이성과의 불안정 성인애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유형이 그 이후 대상에 따라 애착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어 대학생들의 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의 간접적인 영향을 보여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심지연(2013)도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청년후기 개인의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행동능력이 최적의 적응과 밀접한 관계는 자아탄력성과의 관련성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라. 부모애착과 자기위로능력의 관계

Kohut(1971)에 의하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공감적인 부모의 반응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공감적인 양육을 내면화(internalization)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위로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했다.

자기위로능력은 공감적인 부모 대상과의 상호교류를 내면화시키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획득되며, 공감적인 양육에 실패한 유아는 부모로부터 받은 공감능력을 내면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Hamilton, 1988), 타인에 대한 신뢰감 또한 갖추지 못하게 되어 성인이 되어도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Grotestein, 1987).

Moser(1991)도 자기위로능력이 부모로부터의 공감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양육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은 초기 양육자와 유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초기 애착’ 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대상관계수준과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Lorrie(1998)는 청소년들의 대상관계 수준과 우울의 관계 연구에서는 우울한 청소년일수록 긍정적 애착에 대한 대상관계 기능이 낮다고 하였으며, Glassman의 위로의 수용능력(soothing receptivity) 중 자기노출수준은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아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Shaver & Hanzan, 1988; Mikulincer & Nachshon, 1991).

청소년들은 부모를 안전기지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 얻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내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형성되며(이진숙, 2002; Belsky, 2002), 부모의 애착이 안정적이면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불안, 위축, 적개심, 충동성 같은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는 결과(이영래, 2007)는 부모애착은 자기위로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내의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위로능력 중 자기노출수준은 애착수준과는 정적 상관(두정일, 1997)가 있으며, 고소희(2000)는 대학생들 상대로 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안정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가지게 되어 자기노출 능력이 높다고 하였으며, 한기연(2003)도 대학생들의 개인의 사적 자의식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관계성과 자기위로능력과의 상관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부모와의 안정애착이 형성된 경우,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고 타인을 호의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활용할 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자원이 된다(Mikulincer et al., 2003). 또한 이는 어린 시절의 대상항상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자기위로능력이 형성되면 불안이나 긴장상황에 스스로를 노출하면서 타인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자기위로기제가 발달된다. 아울러 스스로 위로하는 능력을 발달시킴에 따라 평생동안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자기위로능력을 발휘되게 되는 것이다.

마. 부모애착과 심리적 독립의 관계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두 가지 영속적인 유산이 ‘뿌리와 날개’ 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는 청년들이 세상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애착과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antrock, 2004)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청소년기 이후 부모애착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주요 관련 변인으로(Kenny, 1994; Lopez, 1992), Hoffman(1984)이 심리적 독립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는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포함하는 시기로 발달과정 중 하나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이 시기는 이전까지 지속되어 오던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동일시를 서서히 벗어나게 되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기초를 쌓아가게 된다(선상화, 2009). 그러므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청년기의 중심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Bloom, 1980), 자녀가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결속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자율감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Josselson, 1988), 청소년 후기에 이루어야 하는 자율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역할이다(이지인, 2007; Lapsley et al., 1989).

가족체계이론에서도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동시에 일어나는 분리-개별화 과정 모두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그리고 두 과정 간에는 상호의존적이며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Lopez & Gover, 1993).

특히 청소년기 이후에는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감소하지만, 청소년기에 있어서 애착의 중심 기능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부정적 심리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제공받고자 하는 것으로(김수진, 2009; Belsky, 2002) 청소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여전히 부모를 애착인물로 활용하려고 하므로 성인들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청소년기라해도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Holmes, 1993; Laghi et al., 2009; Laible, 2004).

이와 함께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년기의 애착 관계는 주된 애착 인물이었던 부모에서 보다 넓은 애착 관계, 예를 들어 동료와의 애착 발달로 변화하며(Fraley & Davis, 1997; Trinke & Batholomew, 1997), 이는 보다 넓은 세계로 탐색하여 관계를 맺어가며 인간사회의 경험을 내·외적으로 넓혀가는 든든한 심리내적인 기둥 역할을 하게 하여 심리적 독립이 성인기 이후의 성격 형성과 사회적 관계의 건강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Schwartz & Buboltz, 2004).

김효정(2009)은 대학생의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상반된 개념이 아니고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심리적 독립은 부모 자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윤승경, 1989; 장휘숙, 2002; 정은희, 1992), 부모에 대한 의존적인 관계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청년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이러한 2차 분리-개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문제가 생겨, 개인의 내적 또는 외적인 문제로 대두된다고 하였다(허윤희, 2004).

심지연(2013)도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심리적 독립은 부모와의 애착과 반대선상에서 대립하는 맥락으로 보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하며 개인은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점차 성장하면서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지각하기 시작하며 나아가 자율성과 개별성을 지각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적 독립은 건강한 인간 발달의 필수과정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바.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의 관계

자기위로능력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인 자원을 사용하여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능력으로(Moser, 1991) 자기위로능력을 통하여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내적 자원을 활용해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즉 자기위로능력이 뒷받침 됐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을 적게 경험하고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적응해 나가며,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보다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확고한 대상항상성을 획득한 개인은 상황이 불안을 유발하는 것일 때도 더 이상 실제의 대상이나 혹은 과도적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이전 대상에 대한 따뜻함과 안정감을 되살려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내적 기체에 의존하는 기체의 발달 과정이다(Busch, 1974). 그러나 대상항상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1차 분리-개별화 단계를 충분히 공감적으로 거치지 못하면 자기 위로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스트레스나 불안이 유발될 때 지속적으로 외부 대상에 의존하여 달래려는 경향을 보이며(William et al., 1997), 이는 청소년기 이후의 2차 분리-개별화인 심리적 독립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1차 분리-개별화인 대상관계수준은 유아기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생 초기 정신 내적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갈등은 이후 발달단계의 모든 과정에서 재활성화 될 수 있다.

Blos(1979)는 Mahler(1975)의 견해를 확장하여 또 하나의 개별화가 청소년기에 일어난다고 제안하여 심리적 독립이라 명명하면서, 청소년기부터 일어나는 두 번째 개별화경험에서는 정체감 혹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재구성이 일어나 결과적으로는 성인으로서의 자기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 시기 이후의 심리적 독립은 성인기 성격형성과 사회적 관계의 건강여부를 결정하고 개인의 정신건강과 적응적인 발달에 기여한다.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은 1차 분리-개별화의 재접근 단계에서의 문제로 인해 분리불안의 상황에서 불안을 줄이고 스스로 위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것을 말해주고 있다(William et al., 1997).

선행연구들에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심리 정서적 문제는 낮게 나타나고(Baker & Shryk, 1984), 사회적 적응이 높고(Hoffman & Weiss, 1987), 신체 및 정서적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Cole et al., 1990)는 것은 심리적 독립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내적 자원을 활용해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기위로 능력과 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지연, 민선희, 김미진(2010)은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 즉 분리개별화 수준과 낙관성의 관계에서도 대상관계수준은 그 자체로 낙관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기위로능력이 부분 매개를 하여 자기위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다시 낙관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인(2010)도 대상관계수준이 직·간접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정서와 자아기능인 자기위로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1.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의 관계 종합

변인간 관계	선행 연구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고영남(2011), 백지숙(2000), 장휘숙(2002), 강성애(2012), 허정선, 현명호(2005), 나선영(2010), 심지연(2013), 김주연(2007), 유성경, 최보운, 홍세희(2004), Kobak & Screery(1988), Kerns & Steven(1996), Shaver & Brennan(1992), Carlsib & Shulman(1993)
자기위로능력 →자아탄력성	박효서(1999), 박지현, 이명조(2012), Schnarch(1997), Kerr & Bowen(1988), Lazarus & Folkman(1991)
심리적독립 →자아탄력성	송순, 박효인(2006), 조화진, 서영석(2010), 나선영(2010), 심지연(2013)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두정일(1997), 이영래(2007), 고소희(2000), 이진숙(2002), 한기연(2003), Kohut(1971), Tolpin(1971), Belsky(2002), Hamilton, (1988), Moser(1991), Lorrie(1998), Grotstein(1987), Mikulincer & Nachshon(1991), Shaver & Hanzan(1988)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김효정(2009), 윤승경(1989), 장휘숙(2002), 정은희(1992), 허윤희(2004), 김수진(2009), 심지연(2013), 선상화(2009), 이지인(2007), Lapsley, Rice & Shadid(1989), Josselson(1988), Bloom(1980), Lopez & Gover(1993), Holmes(1993), Laible(2004), Santrock(2004), Lopez(1992), Belsky(2002), Kenny(1994), Schwartz & Buboltz(2004)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신정인(2010), 이지연, 민선희, 김미진(2010), Mahler, Pine & Bergman(1975), Blos(1979), Busch(1974), Greenberg, Mitchell(1983), Baker & Shryk(1984), Cole, Lapsley & Rice(1990), William, Jamie & Kenneth(1997)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주요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변인 간 인과적 관계에 대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연구모형에 따르면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은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애착은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위로능력은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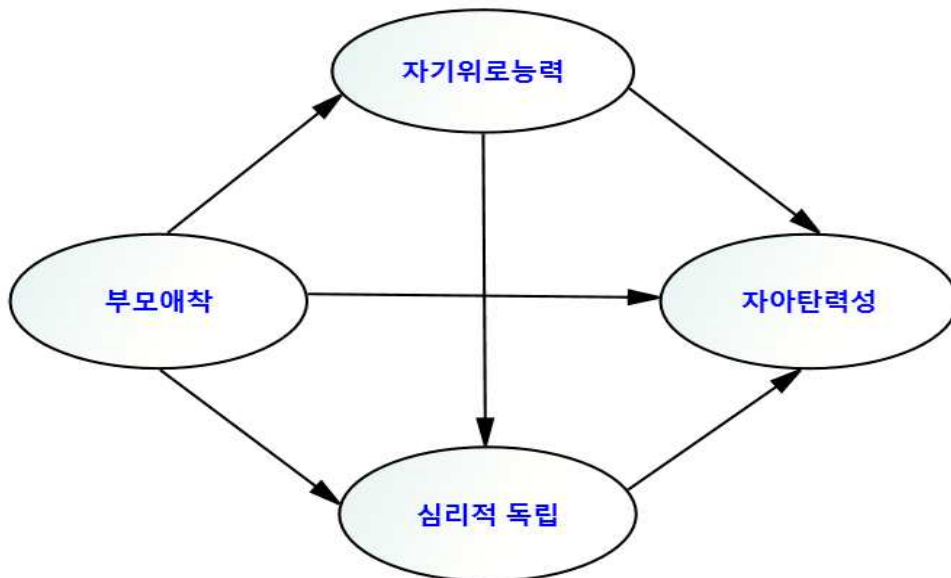


그림 Ⅲ-1. 가설적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심리학회에 등록된 39개교 심리학과 중 4년제 대학 11개교 재학생과 제주도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 1개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4년제 대학 12개교 대학생을 임의 표집하였다.

가. 표집 선정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를 일반 대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개인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적응과 극복을 요구하게 되고, 그 극복 과정을 통해 성숙한 개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성장하는데 일상적인 경험이나 긍정적 삶의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으로 특정한 사람만이 아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면서도 모두에게 필요한 특성이라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 변화와 적응, 대학생 시기의 발달과업들을 이룩해야만 될 때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도 자아탄력성 향상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검증된다면 기타 대학생들이나 취약한 집단들에게도 효과가 검증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심리학과 학생을 표집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심리학과가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심리학과 대학생들은 사범대, 의대, 경찰대, 기타 특수대학처럼 특정한 분야의 대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많으므로 일반 대학생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며, 심리학 관련 설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표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나. 표집크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집크기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요구되는 표집기준으로 표집의 크기를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적합한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이다. 최대우도법 추정방법은 자료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요인의 적재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최소 표본크기는 100~150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때 표본 크기가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ML추정법은 자료들 간의 차이를 탐지하는데 있어 민감성이 증가하여 적합도가 나빠지므로 표본크기 200은 모형 검증에 필요한 임계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우중필, 2012).

한편 모형적합도의 경우, 통계적 검증이 가능한 χ^2 값은 표본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하므로 크기 500 이상의 표본을 사용할 경우 모형에 관계없이 귀무가설이 기각되기 때문에 크기 500 이하의 표본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홍세희, 2005).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연구자의 설계에 따라 복잡할 수도 있고 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 표본크기 보다는 모형의 유형에 따른 상대적 표본크기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대업,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00~500개의 표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수율과 불성실 응답률을 고려하여 65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교 중 한국심리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39개교 심리학 관련 4년제 대학 중 먼저 학과 교수와 조교에게 협조를 구하고 승낙한 학교 11개교 재학생 595명과 제주도내 4년제 대학 중 1개교 재학생 60명으로 4년제 대학 총 12개 재학생 655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655명 중 588명의 자료가 회수되어 89.7%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일부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한 452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어 자료 유효율은 76.8%을 보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4가지 영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인에 대한 측정도구는 기존의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조사도구는 질문지 형식이며 Likert식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적일치도를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활용하였다.

가. 부모애착의 측정도구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1987년 Armsden과 Greenberg가 청소년들의 부, 모, 또래 애착 안정성을 특정하기 위해 제작한 것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부, 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판(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에서 또래 애착을 제외한 부, 모 애착만을 사용하였다. 애착검사는 애착인물에 대한 정서의 질적 특성이나 차이에 기초하여 대상에 대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하도록 설계되었다.

IPPA-R은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으로 3가지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감은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는지의 묻는 것이고,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보는 요인이며, 소외감은 자신에게 무관심하며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좌절 정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 형식은 Likert식의 5점 척도로 “결코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 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일부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계수는 부 애착 .93, 모 애착 .93로 나타났으며, 심지연(2013)의 연구에서는 신뢰감 .89, 의사소통 .91, 소외감 .87 이다.

부모애착 측정시 부, 모를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나 신뢰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없어 부모요인 하나로 묶어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 III-2. 부모애착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N=452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신뢰감	10	1, 2, 3*, 4, 9*, 12, 13, 20, 21, 22	.91
의사소통	9	5, 6*, 7, 14*, 15, 16, 19, 24, 25	.91
소외감	6	8*, 10*, 11*, 17*, 18*, 23*	.82
전체	25		.95

※ Recode문항: * 표시

나. 자기위로능력의 측정도구

자기위로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1989년 Glassman이 개발한 Self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를 박효서(1999)가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위로능력은 회복력 14문항, 신체적으로 위로하기 9문항, 자기노출 10문항, 스스로 위로하기 9문항으로 4가지 하위요인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회복력은 기분이 나쁜 일로부터 얼마나 빨리 극복하는가를 말하고, 신체적으로 위로하기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 스스로 혹은 타인으로부터 신체를 통해 위안을 받는 것이다. 자기노출은 기분 나쁜 일에 대해 타인에게 드러내고 이야기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고, 스스로 위로하기는 기분이 나쁠 때 스스로 자신을 달래고 위로하는 능력을 말한다.

각 문항 형식은 박효서가 번안·수정한 Likert식의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일부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위로능력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도구의 Cronbach α 계수는 회복력 .85, 신체적으로 위로하기 .81, 자기노출 .77, 스스로 위로하기 .60이었으며, 김민성(2013) 연구에서는 회복력 .77, 신체적으로 위로하기 .61, 자기노출 .70, 스스로 위로하기 .63 이다.

박효서(1999)는 하위요인 중 신체적 위로하기는 신체적 접촉이 자연스럽지 않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신체 접촉을 기분이 나쁠 때 다른 사람이 안아준다는가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위로

하기에 해당되는 9문항을 제외한 3개의 요인 총 33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III-3. 자기위로능력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N=452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회복력	14	1*, 4*, 7*, 9, 12, 19*, 20*, 21, 26*, 27*, 28, 29*, 30*, 31	.75
자기노출	10	2*, 5, 8*, 10*, 11*, 13, 16*, 18*, 22*, 24	.62
스스로 위로하기	9	3, 6, 14*, 15, 17*, 23*, 25*, 32*, 33	.62
전체	33		.87

※ Recode문항: * 표시

다. 심리적 독립의 측정도구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해 1984년 Hoffman이 개발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독립의 4가지 차원(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을 정은희(1992)가 번안·수정한 심리적 독립 중에서 갈등적 독립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의 4가지 하위차원, 즉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으로 고안되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1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4가지 차원 중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이 청소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특성(Blos, 1979)이지만, Lopez, Campbell & Watkins(1988)는 갈등적 독립이 심리적 독립을 예측하는 주요 하위요인으로 독자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으며, 이준엽(1994)도 청소년 후기의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수준을 가장 설명하는 것은 갈등적 독립이라 하였다.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과도한 죄의식, 불신, 분노, 화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한다.

모든 문항은 부정적 진술로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항 형식은 Likert식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갈등적 독립 척도는 모두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Hoffman(1984)이 보고한 Cronbach α 계수는 아버지에 대한 갈등적 독립이 .88였으며, 어머니에 대한 갈등적 독립이 .92이었으며 정은희(1992)의 연구에서는 .85이었으며, 심지연(2013)의 연구에서는 .94이다.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갈등적 독립	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0
전체	20		.90

※ Recode문항: 전체 문항

라. 자아탄력성의 측정도구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은석, 김성희(201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의 대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박현진, 1996; 최바울, 2006; 정은옥, 2006; 안도희, 김지아, 2007; Klohnen, 1996; Singh, Yu, 2010)들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존의 측정 도구 분석을 통해서 추출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은석, 김성희(2012)는 자아탄력성을 문제 상황을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자아통제력을 발휘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메타능력이라 정의하며, 긍정적 사고 10문항, 정서조절 10문항, 목표지향성 6문항, 의사소통 방식 10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긍정적 사고는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 자기 자신 및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인지할 있는 능력이며, 정서조절은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일어나는 비효과적인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 목표지향성은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기화하는 능력, 의사소통 방식은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타인과 적절히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각 문항 형식은 Likert식의 5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일부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긍정적 사고 .81, 정서조절 .83, 목표지향성 .77, 의사소통 방식 .71이다.

표 III-5. 자아탄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N=452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긍정적 사고	10	1, 2*, 3, 4, 5, 6*, 7, 8, 9, 10*	.80
정서조절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77
목표지향성	6	21*, 22, 23, 24, 25, 26	.77
의사소통 방식	6	27, 28, 29, 30, 31, 32	.70
전체	32		.83

※ Recode문항: * 표시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8.0 for Windows와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일반적 특성 분석을 규명하는데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등의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을 때 매우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 Gerbbing, 1988). 본 연구에서 적용된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정교화하기 위하여 이상치(outlier)분석을 실시하여 제거하였다. 이상치를 확인하는 것은 보다 보편적이고 신뢰 있는 연구결과를 얻는 동시에 자료의 정규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마할라노비스 거리와 유의확률을 기준으로 이상치를 확인하여 제거하였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다른 관측치와 특정 관측치 간의 거리를 나타낸다.(우종필, 2012)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방법과 입력 자료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해야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되는 측정치들은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가정하고 있다. 다변량 정규성은 모든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2개의 변수들이 동시에 이루는 결합분포가 이변량 정규성을 만족해야 하며, 모든 이변량 산포도가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결합 빈도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 변수의 다변량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살펴볼 수 있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봄으로써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정규성 기준은 왜도 지표 절대값 3.0 이내, 첨도 지표 절대값 8.0~20.0 이내로 설정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정지은, 2013 재인용).

셋째, 본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활용하였다. 2단계 접근법은 측정모형과 측정모형을

동시에 검토하는 1단계 접근법과 달리, 먼저 측정모형을 검토하여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한 후, 구조회귀모형을 검토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즉 제1단계에서 요인과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후 제2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형에 나타난 요인 간을 서로 연결한 이론모형에 대한 전체 적합도와 경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1단계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측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것이 인과관계의 오류와 구분되지 않아 해석적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측정의 적합도를 먼저 검토하고, 후에 측정모형이 포함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넷째, 자아탄력성과 관련 변인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변량 구조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상관행렬을 활용하고 모수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활용하여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의 경우 표본데이터의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런 가정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이터는 많지 않아 이 가정에서 자유로운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부트스트래핑은 모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경험적인 표본추출을 하는 것을 말하며, 부트스트래핑을 계속하면 모수 추정치와 표준오차가 줄게 되어 전체적인 모집단을 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다섯째, 변인 간의 가설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비추어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표 III-6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판단 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홍세희(2000)는 다양한 적합지수 중 유일한 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없어, 여러 가지의 적합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합지수로는 χ^2 , 적합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잔차제곱평균제곱근(RMR), 근사치 오차평균 제곱근(RMSEA) 등을 활용하였으며, 증분적합지수로는 비교적합지수(CFI), 표준적합지수(NFI), 증분적합지수(IFI), 터키-루이스지수(TLI), 간명적합지수로는 간명 표준적합지수(PNFI), 간명비교적합지수(PCFI)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모형 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고, 모형 내 잠재변인에 대해 다중상관자승(R^2)을 산출하여 변인들이 모형을 통해 얼마나 잘 설명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다중상관자승(R^2) 값은 0~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타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최종모형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0.0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활용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는 Sobel 검증과 부트스트래핑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나, Sobel 검증보다 부트스트래핑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Cheung & Lau, 2008; 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 2002; Preacher & Hayes, 2004; 심지연, 2013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III-6.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판단 기준

구 분	판 단 기준
절대적합지수(absolut fit index)	
χ^2	>.05
적합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	>.90
조정된 적합지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85
잔차제곱평균제곱근(RMR, Root Mean-Square Residual)	<.05
근사치 오차평균 제곱근 (RMSEA, 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5 : 좋음 .05~.1 : 수용가능 >.10 : 좋지 않음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90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90
증분적합지수(IFI, Incremental Fit Index)	>.90
터키-루이스지수(TLI, Tucker & Lewis Index)	>.90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	
간명표준적합지수(PNFI, Parsimony NFI)	>.50, .60
간명비교적합지수(PCFI, Parsimony CFI)	>.50, .60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초자료

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응답한 452명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7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전체 452명이며, 이중 남자는 38.5%, 여자는 61.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21~22세 36.5%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 만18~20세 34.3%, 만23~24세 20.4%, 만25~26세 6.9%, 만27이상 2.0%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3학년 27.7%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 2학년 26.8%, 1학년 24.8%, 4학년 20.8%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중위 79.9%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 하위 14.6%, 상위 5.5%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으로는 고졸 45.4%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 대졸 33.8%, 중졸이하 7.7%, 대학원졸 이상 7.7%, 전문대졸 5.3%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으로는 고졸이 62.2%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 대졸 20.6%, 중졸이하 7.5%, 대학원졸 이상 5.3%, 전문대졸 4.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 학년별로 골고루 표집되어 일반 대학생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7.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52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74
	여	278
연령	만18~20세	155
	만21~22세	165
	만23~24세	92
	만25~26세	31
	만27세 이상	9
학년	1학년	112
	2학년	121
	3학년	125
	4학년	94
경제수준	상	25
	중	361
	하	66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5
	고졸	205
	전문대졸	24
	대졸	153
	대학원졸 이상	35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34
	고졸	281
	전문대졸	20
	대졸	93
	대학원졸 이상	24

※ 경제 수준은 대상자들의 주관적 기준임.

나.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1)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아탄력성,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에 대한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은 다음 표 IV-8과 같다.

부모애착에 해당하는 관찰변인은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이다. 관찰변인들의 5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신뢰감(3.88), 의사소통(3.16), 소외감(3.97)으로 대체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 변인들의 값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안정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위로능력에 해당하는 관찰변인은 회복력, 자기노출, 스스로 위로하기이다. 관찰변인들의 7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회복력(4.48), 자기노출(4.84), 스스로 위로하기(4.95)으로 대체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 변인들의 높다는 것은 자신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잘 노출하며 다른 사람들의 위로도 잘 수용하는 능력과 어려움에 대처하여서도 회복력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독립에 해당하는 관찰변인은 갈등적 독립이다. 관찰변인들의 5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갈등적 독립(3.51)으로 이 변인의 값이 증가할수록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과도한 죄의식, 불신, 분노, 화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하기에, 대학생들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율적인 관계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자율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 해당되는 관찰변인은 긍정적 사고, 목표지향성, 정서조절, 의사소통 방식이다. 관찰변인들의 5점 척도 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긍정적 사고(3.97), 목표지향성(3.44), 정서조절(3.43), 의사소통 방식(3.89)은 대체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 변인들의 값이 증가할수록 문제 상황을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자아통제력을 발휘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메타 능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N=452

변인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척도
부모애착					
신뢰감	.70	1.30	5.00	3.88	
의사소통	.79	1.11	4.89	3.16	5점
소외감	.63	1.10	5.00	3.97	
자기위로능력					
회복력	.76	1.79	6.71	4.48	
자기노출	.74	2.56	6.79	4.84	7점
스스로 위로하기	.79	2.86	6.86	4.95	
심리적 독립					
갈등적 독립	.59	1.80	4.85	3.51	5점
자아탄력성					
긍정적 사고	.47	2.00	5.00	3.97	
정서조절	.59	2.00	5.00	3.44	5점
목표지향성	.67	1.67	5.00	3.43	
의사소통 방식	.52	2.17	5.00	3.89	

2) 관찰변인의 다변량 정규성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되는 측정치들은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적합도 지수인 χ^2 값은 관찰변수의 척도 및 왜도 수준에 따른 정규성 이탈 정도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일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하며, 둘째, 조합된 변수들의 결합분포가 정규성을 이루어야 하고, 셋째, 모든 이변량 산포도는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한다(배병렬, 2005). 본 연구에서는 11개 측정변수의 일변량 분포의 조사를 통해 각 관찰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여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정규성에서 벗어나는 왜도와 첨도에 대한 검정 기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Z통계치 보다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지수에 대한 경험적 기준을 따르게 된다. 경험적 기준기준(Chou & Bentler, 1995; Hu, Bentler, & Kano, 1992, 심지연, 2013 재인용)에 따르면 왜도의 경우 절대값이 3.0이상, 첨도의 경우 지수의 절대값이 8.0~20.0 이상일 경우를 정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극단적 편포하고 볼 수 있다.

표 IV-9에 제시된 모든 관찰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지수가 절대값 3.0 및 8.0이하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의 확보되었다.

표 IV-9. 관찰변인의 왜도 및 첨도 N=452

변인	왜도		첨도	
	지수	C.R.	지수	C.R.
부모애착				
신뢰감	-.94	-8.16	1.00	4.33
의사소통	-.15	-1.33	-.60	-2.60
소외감	-.99	-8.56	1.39	6.01
자기위로능력				
회복력	-.05	-.43	-.22	-.94
자기노출	-.01	-.07	-.26	-1.12
스스로 위로하기	-.02	-.17	-.42	-1.83
심리적 독립				
갈등적 독립	-.01	.10	-.34	-1.47
자아탄력성				
긍정적 사고	-.29	-2.50	.50	2.15
정서조절	.21	1.78	-.21	-.89
목표지향성	.03	.28	-.28	-1.20
의사소통 방식	-.17	-1.45	-.01	-.06
Multivariate			15.67	9.85

3)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기초행렬이 되는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행렬은 다음 표 IV-10 같다.

표 IV-10.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경로	1	2	3	4	5	6	7	8	9	10	11
부모애착											
1. 신뢰감	1										
2. 의사소통	.73**	1									
3. 소외감	.69**	.62**	1								
자기위로능력											
4. 회복력	.20**	.23**	.31**	1							
5. 자기노출	.20**	.21**	.24**	.72**	1						
6. 스스로위로하기	.14**	.22**	.11*	.50**	.58**	1					
심리적 독립											
7. 갈등적 독립	.52**	.43**	.53**	.39**	.31**	.19**	1				
자아탄력성											
8. 긍정적 사고	.18**	.12**	.17**	.54**	.44*	.41**	.32**	1			
9. 정서조절	.13**	.11*	.23*	.44**	.31*	.10*	.36*	.27*	1		
10. 목표지향성	.05	.09	.05	.15**	.16**	.16*	.11*	.28**	.12**	1	
11. 의사소통 방식	.17*	.19**	.04	.27**	.32**	.46**	.21**	.42**	.95*	.28**	1

* $p < .05$, ** $p < .01$, *** $p < .001$, 상관계수는 양쪽에서 유의합니다.

2. 측정모형 분석

가.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이 잠재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잠재변인은 1~4개씩의 관찰변인들을 통해 측정되었는데, 부모애착은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을 통해 측정되며, 자기위로능력은 회복력, 자기노출, 스스로 위로하기를 통해 측정된다. 심리적 독립은 갈등적 독립을 통해, 자아탄력성은 긍정적 사고, 정서조절, 목표지향성,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측정하였지만, 하위 변인인 정서조절은 확인적 요인분석 단일성차원에서 적합도 기준에 미달되므로 제외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IV-12와 그림 IV-2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CFA)모형은 주로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얻기 위해 설정되는 측정모형 중의 하나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 평가를 통해 모형이 자료에 통계적으로 부합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IV-11과 같다.

χ^2 검증에서 p값은 최소한 유의수준 5%보다 커야 두 공분산행렬이 같다는 영가설 채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적합도 지수를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홍세희(2000)에 의하면 사회과학 실증분석 연구들의 상당수가 p값이 0에 가까워 영가설이 기각되며, 그 이유로는 χ^2 값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χ^2 값을 유의미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며, χ^2 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GFI=.92, AGFI=.85, CFI=.91, NFI=.90, IFI=.91, TLI=.86, RMR=.04, RMSEA=.0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 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IV-1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 분	판단 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합지수			
χ^2	>.05	101.61 (df=22, p=.00)	미적용
적합지수(GFI)	>.90	.92	적합
조정된 적합지수(AGFI)	>.85	.85	적합
잔차제곱평균제곱근(RMR)	<.05	.04	적합
근사치 오차평균 제곱근 (RMSEA)	<.05 : 좋음 .05~0.1 : 수용가능 >.10 : 좋지 않음	.01	적합
증분적합지수			
비교적합지수(CFI)	>.90	.91	적합
표준적합지수(NFI)	>.90	.90	적합
증분적합지수(IFI)	>.90	.91	적합
터키-루이스지수(TLI)	>.90	.86	양호
간명적합지수			
간명표준적합지수(PNFI)	>.50, .60	.60	적합
간명비교적합지수(PCFI)	>.50, .60	.61	적합

표 IV-1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value	p	개념 신뢰도	
→ 소외감	.76	1.00	Fix	-	-		
부모애착	→ 의사소통	.83	1.36	.08	17.70	***	.92
	→ 신뢰감	.89	1.28	.07	18.51	***	
	→ 자기노출	.79	1.00	Fix	-	-	
자기위로능력	→ 회복력	.62	.96	.08	12.31	***	.78
	→ 스스로 위로하기	.84	1.01	.07	15.27	***	
	→ 심리적 독립	→ 갈등적 독립	1.00	-	-	-	-
자아탄력성	→ 의사소통방식	.56	1.00	Fix	-	-	
	→ 목표지향성	.35	.86	.15	5.74	***	.85
	→ 긍정적사고	.75	1.23	.15	8.35	***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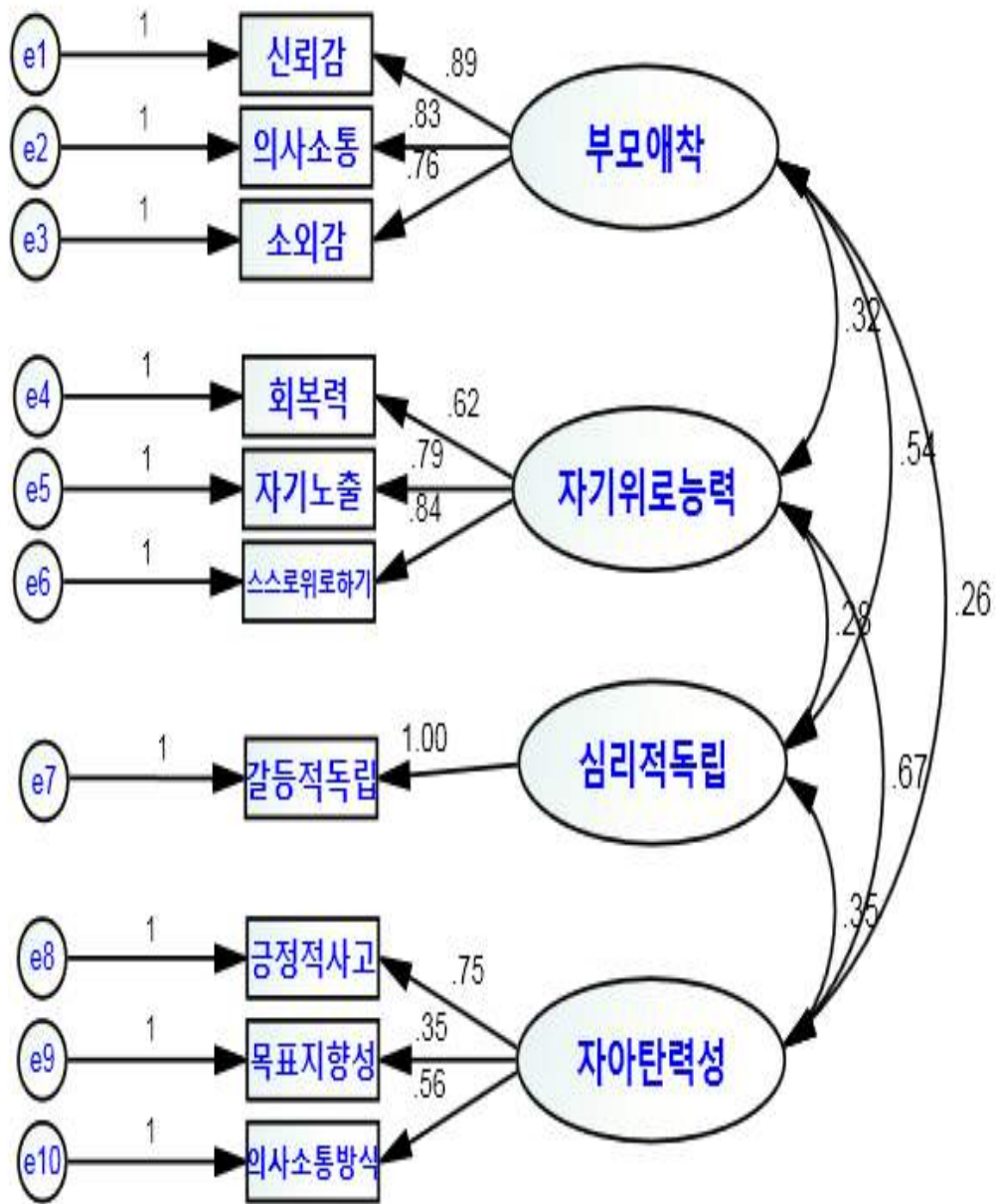
나. 측정모형의 신뢰성 검사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면, 모형은 실질적인 자료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성 검사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탐색적 요인분석과 달리 관찰변수가 단 하나의 잠재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가 제대로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신뢰성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때문이다(김대업, 2008).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나 신뢰성이 인정되었다. 보다 엄격한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Bagozzi와 Yi(1991)가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표준화 계수가 .50~.95기준에 부합하면 전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V-1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목표지향성 .35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표준화계수는 .50~.90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집중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분산추출의 평균값(Variance Extracted) 값을 .5이상으로 판단하는 방법,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값을 .7이상으로 판단하는 방법,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5이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기준으로 집중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보다 분산추출의 평균값(VE)이나 개념신뢰도값(CR)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욱 엄격한 집중타당성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타당도에 비해 먼저 측정도구의 정확성과 오차를 구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값을 기준으로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부모애착 .92, 자기위로능력 .78, 심리적 독립 .90, 자아탄력성 .85으로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구하는 공식

$$\text{개념신뢰도(CR)} = \frac{(\sum \text{표준화추정치})^2}{(\sum \text{표준화추정치})^2 + \sum \text{측정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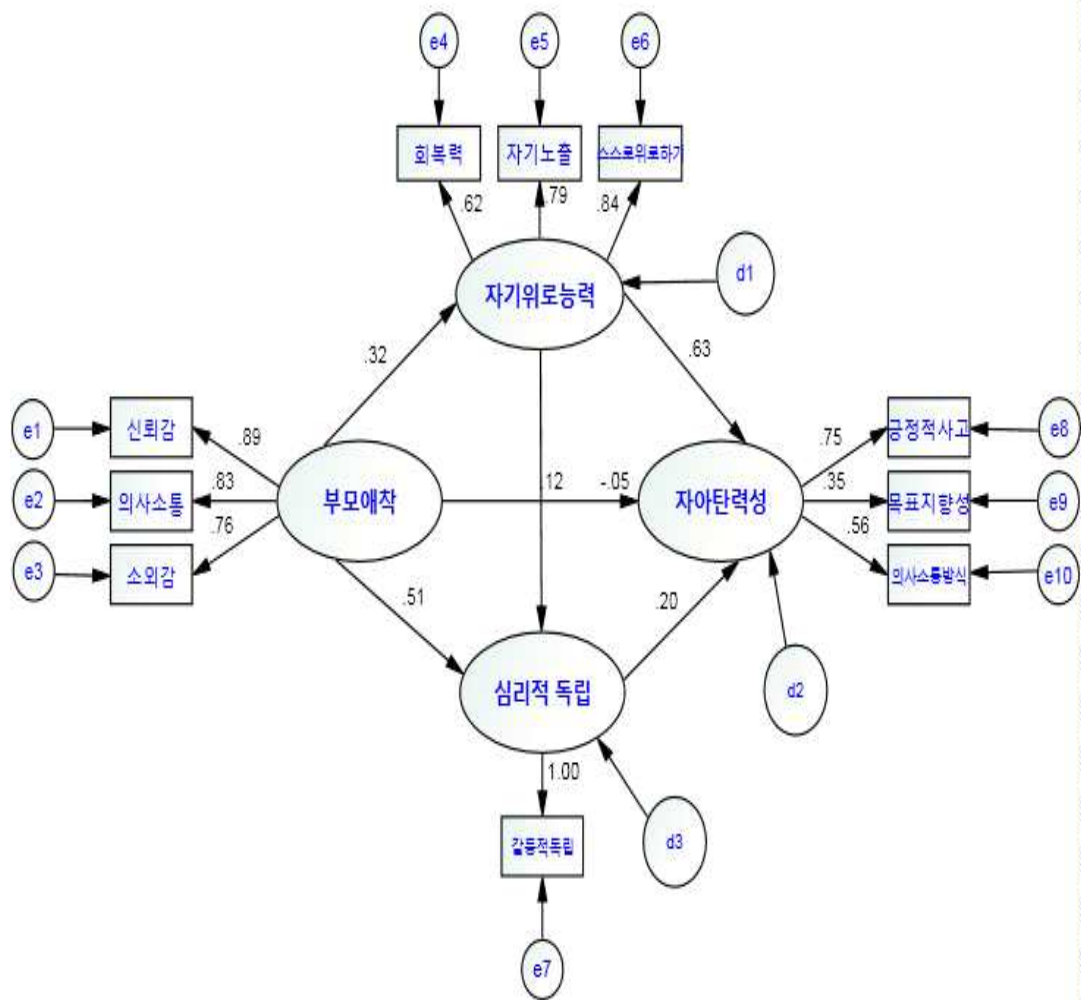
* 주: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IV-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및 모형 수정

가.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에 대한 가설적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는 그림 IV-3과 같다.



* 주: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IV-3. 가설적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연구모형 해석에 있어 가설적 구조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첫째,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둘째, 기초모형(독립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셋째, 모형의 간명도와 관련된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합지수로 χ^2 , GFI, AGFI, RMR, RMSEA를, 증분적합지수로는 CFI, NFI, IFI, TLI를, 간명적합지수로는 PNFI, PCFI를 활용하였다. 이는 다양한 적합지수 중 유일한 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적합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χ^2 값은 표본의 크기(사례수>250)와 다변량 정상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크고 측정변수가 많을 때 모형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평가지수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즉 χ^2 값은 표본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형이 제대로 설정되고 모형검증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χ^2 값은 유의미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가설1.

H₁: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H₀: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적합도 지수인 χ^2 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나 가설적 인과 모형의 적합도는 연구의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가설적 인과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은 기각되었으며, 변인 간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나. 가설적 구조회귀모형의 요인계수 및 경로계수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가설적 구조회귀모형의 요인계수 및 경로계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IV-13과 같다.

먼저, 요인계수의 경우 모든 관찰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의 경우 ‘부모애착→자아탄력성’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의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가설적 구조회귀모형의 요인계수 및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P	채택 여부
요인계수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 긍정적 사고	.75	1.00	-	-	-	
자아탄력성 → 목표지향성	.35	.70	.12	5.95	***	
자아탄력성 → 의사소통 방식	.56	.81	.10	8.35	***	
부모애착						
부모애착 → 소외감	.76	1.00	-	-	-	
부모애착 → 의사소통	.83	1.36	.08	17.70	***	
부모애착 → 신뢰감	.89	1.28	.07	18.51	***	
심리적 독립						
심리적 독립 → 갈등적 독립	1.00	1.00	-	-	-	
자기위로능력						
자기위로능력 → 회복력	.62	1.00	-	-	-	
자기위로능력 → 자기노출	.79	1.05	.09	12.31	***	
자기위로능력 → 스스로 위로하기	.84	1.06	.09	12.45	***	
경로계수						
부모애착 → 자아탄력성	-.05	-.04	.05	0.80	.42	기각
자기위로능력 → 자아탄력성	.63	.32	.04	8.30	***	채택
자기위로능력 → 심리적 독립	.12	.13	.05	2.48	.01*	채택
심리적 독립 → 자아탄력성	.20	.10	.03	3.23	***	채택
부모애착 → 자기위로능력	.32	.44	.08	5.46	***	채택
부모애착 → 심리적 독립	.51	.75	.08	10.05	***	채택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이러한 경로계수들과 함께 다중상관자승(R^2)를 확인해봄으로써, 종속잠재변인(내생잠재변인)이 독립잠재변인(외생잠재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중상관계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회귀분석의 R^2 (결정계수)와 비슷한 것으로 각 모형에서 측정변수가 종속잠재변인(내생잠재변인)이 독립잠재변인(외생잠재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11). 즉 R^2 이 높다는 것은 독립변인들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14는 가설적 구조회귀모형의 잠재변인 다중상관자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기위로능력은 부모애착에 의해 10%, 심리적 독립은 부모애착과 자기위로능력에 의해 31%, 자아탄력성은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에 의해 47% 설명되고 있으며, 부모애착인 경우 외생잠재변인으로 다중상관자승이 제시되지 않는다.

표 IV-14. 가설적 구조회귀모형의 잠재변인 다중상관자승

잠재변인	다중상관자승(R^2)
자아탄력성	0.47
심리적 독립	0.31
자기위로능력	0.10
부모애착	-

다. 가설적 모형수정 및 최종모형 설정

모형 수정은 이론적 근거와 수리적 근거를 토대로 시작하며, 이론적 기준에 의한 모형 수정은 사전적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구자가 사전에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변수간의 관계를 가설화하여 모형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리적 결과에 의한 모형 수정은 통계적 기준에 따라 경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며, 어떠한 비모수를 제거할 것인가는 C.R. 값을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통계적 기준에 따라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모형 수정 및 계량 방법으로 첫 번째는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공분산을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경로를 삭제하여 모형을 수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경로를 추가하여 모형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모형 수정 방법은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ex)는 고정 및 제약특징수를 자유특징수로 할 경우, 모형에 미지수 하나를 추가시킬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수치이다. 즉 수정지수(M.I.)는 연구모형에서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이다(김계수, 2011).

본 연구에서는 가설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설명하기에 대체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모형의 적합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모형수정(Model Modification)을 실시하였다. 가장 높은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를 갖는 변수들 간에 공분산이나 인과관계를 수정하여 단계적으로 모형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그러한 관계가 논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타당한 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수정지수는 산술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므로, 아무리 높은 수정지수 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변수 간 관계의 설정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면 모형수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이학식, 임지훈, 2011).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정지수(M.I.) 및 모수변화(Par Change)를 참고하여 모형수정의 수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합도를 향상시켰다. 이때 상관은 측정변수의 오차항끼리, 잠재변수의 오차항끼리만 설정하여야 한다.

상관은 수정지수(M.I.) 및 모수변화(Par Change) 값의 높은 순위로 설정하여야 적합도가 제일 좋게 나오므로 오차항의 상관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표 IV-15에 제시하였다. 이때 측정오차 간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e4회복력(.11)↔e8공정적사고(37.15)' 간의 상관을 추가하여 1차 수정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초기모형에 비해 대부분의 적합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면 박효서(1999)의 자기위로능력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선행연구를 하위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정서에는 회복력과 스스로 위로하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정서에는 회복력과 자기노출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위로능력의 하위요인 중 회복력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자기위로능력 하위변인인 회복력과 자아탄력성 하위변인인 긍정적 사고와 상관처리 시 적합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으로도 모형수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로계수형의 C.R. 값의 경우 ‘부모애착→자아탄력성’ 경로의 C.R. 의 절대값이 유의수준 5%에서의 임계치인 ± 1.96 보다 낮게 나타난 ‘부모애착→자아탄력성’ 경로를 삭제하여 2차 수정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으나 적합도 기준에 따라 해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 경로삭제(부모애착→자아탄력성)는 그 값이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석결과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적 모형에서 경로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구자는 1차로 수정한 모형을 최종모델로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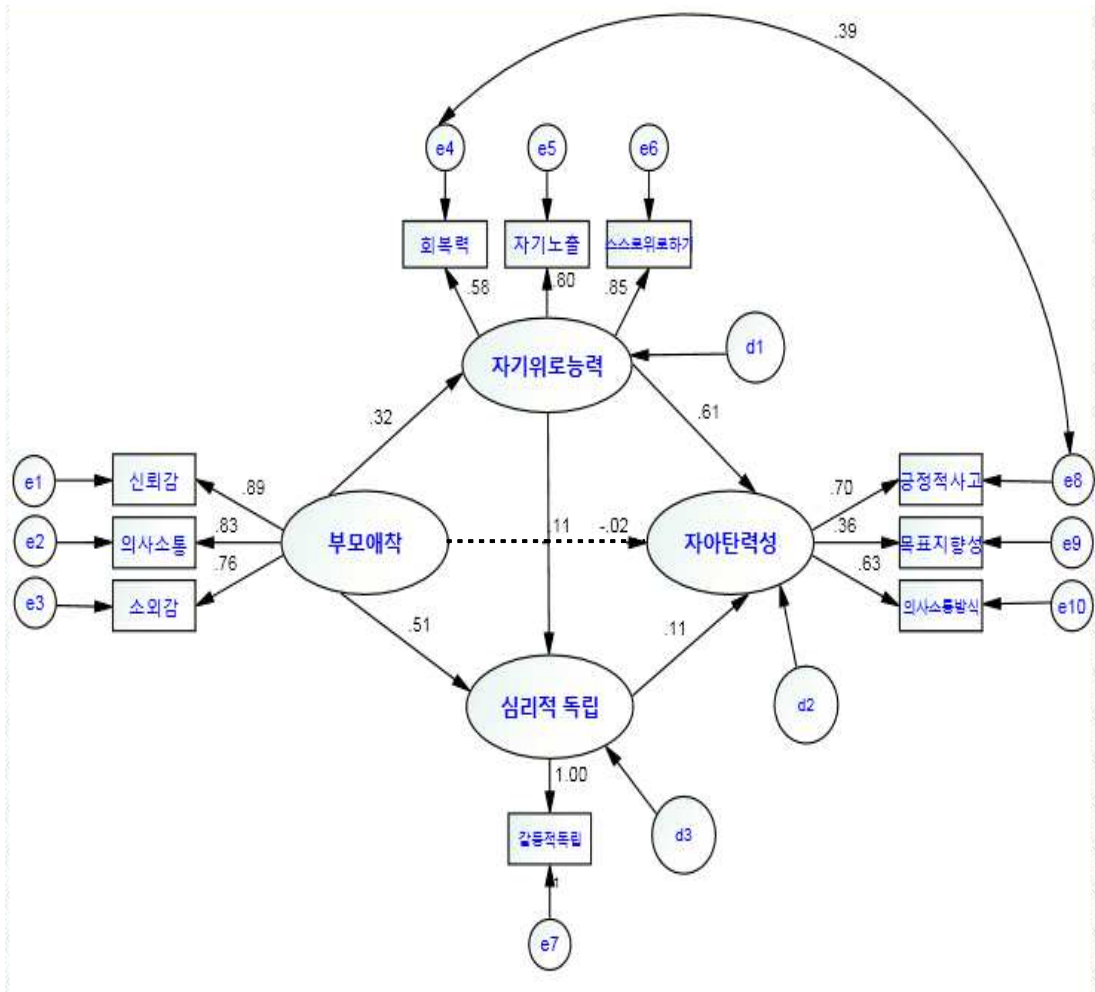
표 IV-15. 오차항간의 M.I. 및 Par Change의 값

오차항		M.I.	Par Change
e5(자기노출)	↔ d3(구조적오차)	6.45	-0.05
e5(자기노출)	↔ d2(구조적오차)	4.44	-0.03
e4(회복력)	↔ 부모애착	4.49	0.05
e4(회복력)	↔ d3(구조적오차)	41.57	0.19
e4(회복력)	↔ d2(구조적오차)	7.52	0.05
e1(신뢰감)	↔ d3(구조적오차)	4.40	-0.03
e1(신뢰감)	↔ d2(구조적오차)	5.67	0.02
e1(신뢰감)	↔ e4(회복력)	9.29	-0.06
e2(의사소통)	↔ e6(스스로 위로하기)	7.89	0.05
e3(소외감)	↔ d3(구조적오차)	16.56	0.06
e3(소외감)	↔ e4(회복력)	13.94	0.08
e7(갈등적 독립)	↔ e5(자기노출)	4.69	-0.05
e7(갈등적 독립)	↔ e4(회복력)	34.97	0.17
e7(갈등적 독립)	↔ e1(신뢰감)	5.96	-0.03
e7(갈등적 독립)	↔ e3(소외감)	18.55	0.06
e10(의사소통방식)	↔ d3(구조적오차)	9.11	-0.04
e10(의사소통방식)	↔ e6(스스로 위로하기)	5.81	0.03
e10(의사소통방식)	↔ e4(긍정적 사고)	25.62	-0.11
e10(의사소통방식)	↔ e1(신뢰감)	9.82	0.03
e10(의사소통방식)	↔ e3(소외감)	17.35	-0.04
e10(의사소통방식)	↔ e7(갈등적 독립)	8.66	-0.04
e9(목표지향성)	↔ e10(의사소통 방식)	4.51	0.03
e8(긍정적 사고)	↔ d3(구조적오차)	5.13	0.03
e8(긍정적 사고)	↔ e5(자기노출)	9.67	-0.04
e8(긍정적 사고)	↔ e4(회복력)	37.15	0.11
e8(긍정적 사고)	↔ e2(의사소통)	5.67	-0.03
e8(긍정적 사고)	↔ e7(갈등적 독립)	5.32	0.03

다음으로 가설적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표 IV-16를 제시하였으며, 모형수정 통한 최종 구조모형 결과는 그림 IV-4와 같다.

표 IV-16. 가설적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의 모형적합도 비교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가설적 모형	수정1(최종모형)	수정2
수정사항			e4(회복력)↔ e7(긍정적사고)	수정1,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경로삭제
절대적합지수				
χ^2	χ^2 검증 유의확률	171.52 (df=30, P=.00)	137.96 (df=29, P=.00)	138.02 (df=30, P=.00)
GFI	>.90	.92	.94	.94
AGFI	>.85	.85	.89	.89
RMR	<.05	.04	.04	.04
RMSEA	<.10	.09	.09	.09
증분적합지수				
CFI	>.90	.91	.94	.94
NFI	>.90	.90	.92	.92
IFI	>.90	.91	.94	.94
TLI	>.90	.86	.90	.90
간명적합지수				
PNFI	>.50, .60	.60	.60	.61
PCFI	>.50, .60	.60	.60	.62



* 주1: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주2: 경로계수가 유의한 선 → , 유의하지 않는 선 ⇢ 로 표시됨

그림 IV-4. 최종 구조모형 결과

4.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영향 관계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이 자아탄력성에 정적으로 직접적 영향관계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와 C.R.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의 가설별 검증 결과는 표 IV-17의 변인 간 영향관계에 대한 효과 분석 결과와 같다.

표 IV-17. 변인 간 영향관계에 대한 효과 분석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2-1	부모애착 → 자아탄력성	-.05	.05	0.80
2-2	자기위로능력 → 자아탄력성	.63	.04	8.30***
2-3	심리적 독립 → 자아탄력성	.20	.03	3.23**
	자기위로능력 → 심리적 독립	.12	.05	2.48*
	부모애착 → 자기위로능력	.32	.08	5.46***
	부모애착 → 심리적 독립	.51	.08	10.05***

* $p < .05$, ** $p < .01$, *** $p < .001$

가설2-1.

H₁: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H₀: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부모애착의 경로계수는 $-.05$ (C.R.=0.80)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가설을 채택하고,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2-1 은 기각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대학생의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2-2.

H₁: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H₀: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자기위로능력의 경로계수는 .63(C.R.=8.30)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2-2 은 채택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설2-3.

H₁: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H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경로계수는 .20(C.R.=3.2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2-3 은 채택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각 변인들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그리고 심리적 독립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모형에 잠재된 잠재변인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하며,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두 변수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말한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총효과(total effect)라 하며, 변수간 총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로 분해하는 것을 상관의 분해(decomposition of correlation),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라 한다(우중필, 2012; 배병렬, 2006)

매개효과에 대한 판단은 우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올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올 경우 완전매개를 의미하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동시에 유의하게 나타나면 부분매개를 의미한다. 각 매개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는 AMOS에서 제공하는 Bootstrap방법을 활용하였다.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18과 같다.

표 IV-18.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설	경로유형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3-1	부모애착	독립-매개	부모애착→자기위로능력	.32***	.32***	
	→자기위로능력	매개-종속	자기위로능력→자아탄력성	.63***	.63***	
	→자아탄력성	독립-종속	부모애착→자아탄력성	-.05	.20**	.15**
3-2	부모애착	독립-매개	부모애착→심리적 독립	.51***	.51***	
	→심리적 독립	매개-종속	심리적 독립→자아탄력성	.20**	.20**	
	→자아탄력성	독립-종속	부모애착→자아탄력성	-.05	.10**	.05**
3-3	자기위로능력	독립-매개	자기위로능력→심리적 독립	.12*	.12*	
	→심리적 독립	매개-종속	심리적 독립→자아탄력성	.20**	.20**	
	→자아탄력성	독립-종속	자기위로능력→자아탄력성	.63***	.02*	.65***
3-4	부모애착	독립-매개	부모애착→자기위로능력	.32***	.32***	
	→자기위로능력	매개-매개	자기위로능력→심리적 독립	.12*	.04*	.16*
	→심리적 독립	매개-종속	심리적 독립→자아탄력성	.20**	.31	.51**
	→자아탄력성	독립-종속	부모애착→자아탄력성	-.05	.01**	-.04**

* $p < .05$, ** $p < .01$, *** $p < .001$

가설3-1.

H₁: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H₀: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기위로능력을 통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0** (.32×.6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이때 부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5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부모애착이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

가설3-2.

- H₁: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 H₀: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심리적 독립을 통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0**(.51×.2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이때 부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5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부모애착이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

가설3-3.

- H₁: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은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 H₀: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은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은 심리적 독립을 통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2*(.12×.2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은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3은 채택되었다. 이때 자기위로능력이 자아탄력성과의 직접효과는 .63***, 간접효과는 .02*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기위로능력이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

가설3-4.

H₁: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H₀: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통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32×.12×.2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3-4는 채택되었다. 이때 부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5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부모애착이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각각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 모형에서, 변인 간 인과적 관계가 적합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를 설정하였다.

먼저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의 변인들과의 인과적 관계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고, 각 변인들의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에 대하여 일반 대학생 655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후, 452명의 표집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AMO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인 간 인과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인과 모형에서 변인 간 인과적 관계가 연구모형에 적합하였다.

둘째, 각 변인간의 직접적인 관계 가설 검증으로 부모애착→자기위로능력, 부모애착→심리적 독립, 부모애착→자아탄력성으로 설정하였다. 자기위로능력→자아탄력성, 심리적 독립→자아탄력성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유의하였으나, 부모애착→자아탄력성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은 각각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자기위로능력과 자아탄력성에서 심리적 독립은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동시에 매개 시에도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각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의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자기위로능력, 부모애착→심리적 독립, 부모애착→자아탄력성, 자기위로능력→자아탄력성, 심리적 독립→자아탄력성, 자기위로능력→심리적 독립의 6개의 경로를 설정하여 이론적, 수리적 적합성을 예측하였다. 이론적 적합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수리적 적합성은 통계적 방법으로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변인 간 다중상관지수가 자아탄력성은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에 의해 47%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어 변인 간 인과적 관계가 높게 설명되고 있다. 가설적 구조모형 설정 결과 일부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미달되어 자기위로능력의 하위변인인 회복력과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긍정적 사고의 경로를 추가하여 적합도를 개선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하게 나타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며 변인 간 인과모형은 우리나라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로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요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의 자아탄력성과 관련한 변인 간 연구를 실행하면서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구조모형을 설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인데, 최근에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자아탄력성이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자아탄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변인들로 구조모형의 인과관계 적합도를 살펴 보았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의 자아탄력성과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자아탄력성, 자기위로능력→자아탄력성, 심리적 독립→자아탄력성과 각각의 직접적인 경로를 설정하였다.

부모애착→자아탄력성의 $-.05$ 로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기위로능력→자아탄력성은 $.63$, 심리적 독립→자아탄력성은 $.20$ 으로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유의미하였다.

대학생의 부모애착→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연구 결과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05$ 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인생초기에 형성된 애착 안정성이 청소년들이 발달적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지니게 하고(Kobak & Sreery, 1988),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성인이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으며(장휘숙, 2002; 허정선, 현명호, 2005; Shaver & Brennan, 1992; Carlsib & Shulman, 1993; Kerns & Steven, 1996; Kobak & Sreery, 1988), 부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지은, 2003; Kerns & Steven, 1996; Kobak & Sreery, 1988; Shaver & Brennan, 1992)들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 대상이 대학생들이어서 아동기의 부모애착이 성장과정에서 다른 요인들에 의해 중재되거나, 애착 이외의 다른 변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을 높이 시사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이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63$ 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자기위로능력은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불유쾌한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내적 자원을 사용하여 불유쾌한 정서를 줄일 수 있는 능력으로, 이는 적절한 자아통제로 인지, 정서적 조절능력인 자아탄력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자기위로능력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기위로능력과 자아탄력성은 한 인간의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려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적 맥락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는 것은(Kerr & Bowen, 1988; Lazarus & Folkman, 1991; Schnarch, 1997) 자기위로능력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20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청소년기 이후의 2차 분리-개별화를 통해 한 개인의 독립된 자아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심리적 독립이 개인의 독립적인 행동능력과 심리적 성숙, 자아의 자율성, 최적의 적응 능력의 발달을 촉진한다(송순, 박효인, 2006; Berman & Sperling, 1994)는 것은 심리적 독립의 대학생 시기의 필연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심지연(2013)도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것은 자아탄력성 수준이 향상되려면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적 독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각각 살펴보면,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자기위로능력과 자아탄력성에서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의 동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자기위로능력을 통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0, 직접효과는 -.05로 자기위로능력의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 여기서 부모애착→자기위로능력 .32, 자기위로능력→자아탄력성 .63으로 자기위로능력에서 자아탄력성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이 자아탄력성이 높으며(장휘숙, 2002; 허정선, 현명호, 2005; Shaver & Brennan, 1992; Carlsib & Shulman, 1993; Kerns & Steven, 1996; Kobak & Screery, 1988), 부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지은, 2003; Kerns & Steven, 1996; Kobak & Screery, 1988; Shaver & Brennan, 1992)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이 대학생 시기에 와서는 선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조화진, 이영석 2010)와 같은 맥락이다. 대학생 시기는 부모애착 보다는 불안이나 긴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유쾌한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며 자신을 편안한 상태로 이끌 수 있는 자기위로능력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위로능력이 핵심 도전이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Schnarch, 1997)과 아울러 자기위로능력을 향상시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심리적 독립을 통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0, 직접효과는 -.05로 심리적 독립의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 여기서 부모애착→심리적 독립 .51, 심리적 독립→자아탄력성 .20으로 부모애착에서 심리적 독립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이 세상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애착과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것과(Santrock, 2004), 심리적 독립은 부모 자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윤승경, 1989; 장휘숙, 2002; 정은희, 1992). 또한 청소년 시기 이후의 심리적 독립은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포함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기초를 쌓아가게 되며(선상화, 2009), 청년기의 중심 과제이며(Bloom, 1980), 청소년 후기에 자율성 발달과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의 필수적인 핵심역할을 하며(이지인, 2007; Lapsley et al., 1989), 성인기의 성격 형성과 사회적 관계의 건강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Schwartz & Buboltz, 2004) 볼 때 대학생들의 심리적 독립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과 자아탄력성에서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심리적 독립을 통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2, 직접효과는 .63로 자기위로능력의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 여기서 자기위로능력→심리적 독립 .12, 심리적 독립→자아탄력성 .20으로 두 경로의 영향이 비슷하지만, 자기위로능력에서 자아탄력성의 직접효과는 .63으로 크게 나타나 부분 매개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 독립은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으며(심지연, 2013), 자기위로능력(self-soothing)은 자아탄력성과 깊은 관련이 있고(Kerr, Bowen, 1988),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요구에 대한 반응인 대처방식에는 자기위로능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은(Lazarus, Folkman, 1991) 자기위로능력과 아울러 심리적 독립은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은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간접효과는 .01, 직접효과는 -.05로 유의하지 않아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

대학생 시기에 부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함께 매개하고 있을 때에도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학생 시기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모애착이 영향이 크게 미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형성된 개인의 부모애착을 바탕으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나, 자아탄력성은 자기위로능력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개인의 자기위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기에 상담이나 심리치료 현장에서 자기위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 초기에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유형이 그 이후 시기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되지 않으며, 부모-자녀관계의 질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경로로 성인애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Cook, 2000; Overbeek et al., 2003)과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분리-개별화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조화진, 서영석, 2010)는 아동기 이후 대학생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부모애착 이외의 다른 개인 내적인 변인이 중재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결론

본 연구에서 얻은 분석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결론과 의의를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인과관계 모형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은 자아탄력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즉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에 의해 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각각의 변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모형 내의 다른 변인인 자기위로능력 및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변인인 부모애착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결과와 성장과정에서 여러 변인 특성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부모와 형성된 안정적이고 친밀한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있더라도 개인이 내적인 요인과 여러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이 대학생 시기의 자아탄력성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에 변인들의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자기위로능력을 매개하여 자아탄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이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높은 자기위로능력이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부모애착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존재로 개인내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인 적응능력인 자기위로능력을 향상시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불안에 위축하지 않고 조절하며 타인의 위로를 수용할 수 있는 자기위로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대학생의 부모애착은 심리적 독립을 매개하여 자아탄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이 애착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높은 심리적 독립이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및 결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발달과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청소년기 이후에 발달하는 개인의 심리적 독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생의 자기위로능력은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하여 자아탄력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이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이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이 동시에 높아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생 시기에는 자기 내적 변인들의 작용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자 자신의 스스로 보살피는 노력과 함께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져 개별적인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함께 매개하고 있을 때에도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학생 시기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부모애착이 영향이 크게 미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변인 역할이 확인됨에 따라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자아탄력성 선행연구들은 자아탄력성을 매개 변인으로 하는 연구와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변인 간 연구,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자아탄력성이 직, 간접적인 매개효과가 항상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항상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구체적으로 자아탄력성을 매개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내적 변인인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매개로 하여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인과적 관계를 규

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대학생들은 어린 시절 부모애착을 바탕으로 하여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나면서 성인초기에 들어선 시기여서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을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을 매개변인으로 한 결과 각 변인이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연구에 새로운 이해가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아탄력성의 많은 연구들에서 외적변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자아탄력성의 개인 내적 매개 변인에 관한 연구를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위로능력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선행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어 자아탄력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대학생들이 스스로 심리적인 독립 기제에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부모애착이 성인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기도 하지만, 성장기에 주요 변인들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상담관계에서도 관계 형성을 통해서 내담자가 과거 부모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발달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시 되며,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 시기에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탐색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상담이 이루어져 대학생들이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위로능력 척도는 Glassman(1989)이 개발한 45문항을 박효서(1999)가 번안·수정하여 총 42문항, 전희정(1999)이 청소년에 맞게 번안·수정한 총 29문항 등을 선행연구들에서 다수의 연구자가 연구 의도에 따라 하위변인들만 일부사용하거나 재구성하여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다양한 대상들에게서 변인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을 감안한다면, 자기위로능력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자기위로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 척도(이은석, 김성희, 2012)는 긍정적

정서, 정서조절, 목표지향성, 의사소통 방식 4요인으로 구성된 도구로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정서조절’은 단일성차원에서 적합도 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며, ‘목표지향성’인 경우도 요인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척도개발 이후 사용된 선행연구가 없어 검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각 문항과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재검토한 후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자아탄력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 설문연구는 한꺼번에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양적인 분석에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탄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개인 내적 요인들의 질적인 폭을 제한할 수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변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인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 시기에 이르러서는 어린 시절의 형성된 부모애착과 현재의 자아탄력성 사이에 자기위로능력과 심리적 독립 변인 외에 다른 내적 변인들 및 외부적인 여러 변인들의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외부 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강명희(201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성애(2012). 대학생의 애착 및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진경(2000).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영남(2011).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동료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7(1), 246-269.
- 김계수(2011).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교현(1994). 자기노출과 분노억제 경향에 따른 생리, 정서 및 자기 이해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교현, 한덕웅(1996). 자기노출의 목표, 자발성 및 분노억제경향이 생리적 각성, 정화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66-88.
- 김대업(2008). Amos A to Z: 논문작성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파주: 학현사
- 김동희(2003). 만성질환아의 극복력(resilience) 측정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2013). 성폭력상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자기위로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경(2003).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 김수안, 민경환(2011). 탄력성 척도의 비교 및 탄력성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223-243.
- 김수임, 김창대(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10(3), 1573-1591.
- 김수진(2009). 애착이론에 근거한 중학생의 대인관계 증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진(1998). **내담자의 대상관계 수준, 작업동맹 및 상담 중 의사소통방식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경(2004).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간의 경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중운, 최미숙(201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2), 45-68
- 김주연(2007).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택호(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효정(2009).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휘운(2012).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존중감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수(2004). **대학생의 목표지향성과 자아효능감**. **미래교육연구**, 17(2), 35-53.
- 박원주(2011).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과 긍정 및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원주, 이기학(2008). **탄력성에 따른 성격유형별 학교생활적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75-695.
- 박은희(2003). **자아탄력성, 지능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혜(2006). **상담자의 자기위로능력, 영적안녕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 이명조(2012).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1-19.
- 박효서(1999). **자기위로능력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선상화(2009). 부모애착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과의 관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혜연(2008).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의 관여 방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선진(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태주(2012).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도움추구행동의 경로모형.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순, 박효인(2006).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적 독립에 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3(2), 5-25.
- 송지준(2013).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개정2판). 서울: 21세기사.
- 신미(2006). 부와 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및 여대생의 성인애착.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지연(2013).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옥경, 김연수, 권자영(2006).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143-173
- 양옥경, 최영민(2001). 한국인의 한(恨)과 탄력성: 정신보건사회사업에의 적용.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7-29.
- 양혜선(2004).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정(2012). 아버지 애착표상, 아버지 탐색민감성, 유아 애착안정성 및 유아 발달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종필(2012). 우종필 교수의 교수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Amos 4.0~20.0

공용. 서울: 한나래

- 유성경, 심혜원(2002). 적응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 연구**, 16(4), 189-206
- 유성경, 최보운, 홍세희(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한국교육심리학회**, 18(1), 393-408
- 윤승경(1989). **청년기 자녀의 애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11). **대학생의 위험요인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명확성과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보라, 김미애, 이기학(2005). 외향성이 대학생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99-112.
- 이연실(2012). **유아의 탄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 이주희, 이한나(2011).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대학생 적응의 관계 연구: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제효과 분석. **특수교육**, 10(3), 245-268.
- 이윤주, 민하영, 이영미(2004).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 자아탄력성 수준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5(4), 125-144
- 이은석, 김성희(2012). 대학생 자아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6), 3077-3094.
- 이은정(2013). **자아탄력성의 정서 및 인지 유연성이 적응과 적극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52.
- 이지연, 민선희, 김미진(2010).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과 낙관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8(2), 13-22.
- 이지인(2007). **어머니의 애착경험, 심리적 통제 및 청소년의 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2).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진(2003). 애착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태자(2004). 고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전희정(1999). 청소년의 자기위로능력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6). **발달심리학(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 정옥분, 한성열, 이숙자, 이종호,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2009). 대학생의 정서 및 자기조절능력과 창의성 관계. **인간발달연구**, 16(2), 171-190.
- 정은이(2013). 대학생 시기의 후회와 주관적 안녕 및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4(1), 305-330
- 정은희(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생활적응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수진(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와 대학생생활 적응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재, 김정미(2011). 대학생의 애착안정성과 대인불안의 관계: 자기표상 및 타인표상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1), 201-222.
- 조화진(2005). 부모와의 애착 및 분리-개별화가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화진, 서영석(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최바울(2007). 대학생의 적응유연성신념이 대학생생활의 적응과 스트레스 조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연(2000). 정서중심적 대처의 재개념화: 기능적 유사성에 근거한 대처차원의 구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연(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혜연(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패턴과 심리적응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21.
- 한기연(2001). **분노 스스로 해결하기**. 서울: 학지사.
- 한기연(2003). 개별성-관계성과 자기위로능력관계에서 자의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75-89.
- 한영민(2010).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정선, 현명호(2005). 가족의 애착, 귀인양식 및 자아탄력성과 표출정서 (Expressed Emotion)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37-51
- 홍기묵, 김광웅(2012). 상담자의 자기돌봄에 대한 개념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고찰. **한국놀이치료학회**, 15(2), 153-177.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수민(2009). **부모의 부모애착 및 자녀의 부모애착과 자녀의 대인관계 간의 관계: 남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자, 조수진(2006). 애착이론과 그 영향에 대한 고찰. **동아논총** 42, 151-171.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5-716.
- Ainsworth, M. D. S., & Bowlby, J. (1991). An ethological approach to personality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6, 333-341.
- Allen, J. P., Moore, C., Kuperminc, G., & Bell, K.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5), 1406-1419.
- Amstrong, J. G., & Roth, D. M. (1989). Attachment and Separation difficulties in eating disorder: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8, 141-15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Atwater, E. (1979). **적응심리: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개인성장**: [*Psychology of adjustment: Personal Growth in a Changing World*].(김인자 역). 서울: 한국심리상담소.(원전은 1979년에 출판).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cademic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Baker, R. W., & Siryk, B. (1989). *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ell, S. J. (1970).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object as related to mother-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41*, 291-311.
- Belsky, J., & Cassidy, J. (1994).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In M. Rutter & D. Hay(Eds.), *Developmental through life: A handbook for clinicians*. Oxford: Blackwell.
- Beth, E. S. (1993).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disorder and narcissism*: Idealization and capacity to self-soothe. Wright Institute.
- Blanck, R., & Blanck, g. (1986). *Beyond ego psychology: development object relations theory*.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 Block, J., & Block, J. H.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es(ED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Block, J., & Block, J. H. (2006).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61*(4), 315-327.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loom, M. V. (1980). *Adolescent-parental separation*. New York: Gardner Press.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72*, 162-186.
- Blos, P. (1979).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In Blos, P., *The Adolescent Passage: Developmental Issu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Counseling Psychology*, *38*, 39-51.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ed.),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82). Violence in the family as a disorder of the attachment and care giving system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44*(1), 9-27.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2009). 애착: 인간애착행동에 대한 과학적 탐구: [Attachment]. (김창대 역). 서울: 나남.(원전은 1969년에 출판).
- Bretherton.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759-775.
- Busch, F. (1974). Dimension of the first transitional object.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91*, 215-229.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mpas, B. E. (1987). Stress and life event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mpton. (1995). *Object and object relationships*. In B.E. Moore, & B.D. Fine(Ed.), *Psychoanalysis: The major concepts*.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Egeland, B., & Farber, E. A.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s over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logy*, *5*, 517–528.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lavell, J. H., Friendrichs, A. G. & Hoyt, J. D. (1970). Developmental changes in memorization processes. *Cognitive Psychology*, *1*, 324–340.
- Frank, S. J., Pirsch, L. A., & Wright, V. C. (1990). Late adolescent's pre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71–587.
- Fraser, M. W., Richman, J. M., & Galinsky, M. J. (1999). Risk, protection, and resilience: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 129–208.
- Funder, D. C., & Block, J. (1989). The role ego–control, ego–resiliency, and IQ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41–1050.
- Garnezy, N. (1974). Children at risk: The search for antecedents of schizophrenia. *Schizophrenia Bulletin*, *8*, 14–90.
- Garnezy, N. (1993). Children at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arnezy, N., & Rutter, M.(1985). *Acute reactions to stress. In M. Rutter & L. Hersov(Ed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Modern approaches* (2Ed. pp. 152–176) Oxford: Blackwell Scientific.
- Glassman, E. J . (1989).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 Canada : York Univ.
- Greenacre, P. (1969). The fetish and the transitional object.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4, 145–164.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 Hamilton, N. G.(2007).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Object Relations Theory in Practice*].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0년에 출판).
- Hamilton, N. G.(2008). 심리치료에서 대상관계와 자아기능: [*The Self And The Ego In Psychotherapy*].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윤숙경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6년에 출판).
- Harlow, H. F., & Zimmerman, R. (1959). Affectional responses in the infant monkey. *Science*, 130, 421–432.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d adolescent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ffman, J. A., &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57–163.
- Holmes, J. (1992).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orner, A. J. (1982). *Object relations and the developing ego in therapy*. New York: Jason Aronson.

- Josselson, R. (1987). *Finding herself: Pathways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San Francisco: Jossey-Bass.
- Josselson, R. (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Lapsley, D. K., & Power, F. C. (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New York. Springer-Verlag.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erns, K. A., & Steven,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323-342.
- Kerr M. E., & Bowen M.(1988). Family Evaluati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Skowron, Elizabeth A.; Friedlander, My-rna 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NY : Norton, 1988, 45*(3), 235-246.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Kobak, R. R., & Sr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ghi, F., & D' Alessio, M., & Pallini, S., & Baiocco, R. (2009).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Time Perspective in Adolescence. *Soc Indic Res, 90*, 181-194.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urs. *Journal of Adolescence, 27*, 703-716.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ce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68*, 561–565.
-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 (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86–294.
- Lazarus, R. S. (2000). Toward better research on stress and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65–673.
- Letzring, T. D., Block, J., & Funder, D. C. (2005).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Generalization of self-report scales based on personality descriptions from acquaintances, clinicians, and the self.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 395–422.
- Linda, J. F.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 constancy and separation anxiety in the context of children's reactions to fairy tales*. New York Univ.
- Lopez, F. G., Campbell, V. L., & Watkins, E. C. (1988). Family structure,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 canonical analysis and cross-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02–409.
- Luthar, S. S., & Cicchetti, D.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857–885.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hler, M. S. (1971). A study of the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 and its possible application to borderline phenomena in the psychoanalytic situation.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6*, 403–424.

- Mahler, M. S.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
- Mallinckrodt, B., & Wei, M. (2005).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58–367.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ore, D. (1987). Parent–adolescent separation: The construction of adulthood by late adolescents, *Development Psychology, 32*(2), 298–307.
- Moser, M. L. (1991). *Transitional object and their relationship to self–soothing mecanism in latency aged childre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Muuss, R. E. (2003). **청년발달의 이론**: [*Theories of Adolescence 6nd ed*]. (정옥분, 윤종희, 도현심 공역). 서울: 양서원.(원전은 1996년에 출판).
- Nada–Raja, S.,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471–485.
- O'Connell–Higgins, R. (1983).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apacity for Intimacy. Qualifying Paper*. Havard Grauate School of Education.
- Papini, D., & Roggman, L.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t, 12*, 420–440.

- Rice, K. G. (1992).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203-213.
- Rice, K. G., Cole, D. A., & Lapsley, D. K. (1990). Separation individualism,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Measurement validation and test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2), 195-202.
- Ritvo, S. & Solnit, A. J. (1985). Influences of early mother-child interaction on identification process.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13*, 64-86.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Journal of the Orthopsychiatry, 57*, 316-331.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2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 Weintraub, S.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97-11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pson, E. E. (1998). The debate on individualism: Indigenous Psychologies and their role in personal and social functioning. *American Psychologist, 43*, 15-22.
- Santrock, J. W. (2004). *Adolescence(9th ed.)* New York: McGraw-Hill
- Sarnoff, C. (1976). *Latency*. New York : Jason Aronson.
- Schwartz, J. p., & Buboltz, Jr., W. C.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5*(5), 566-577.
- Seligman. M. E. P.(2008). **학습된 낙관주의**: [*Learned Optimism*]. (최호영 역). 서울: 21세기북스.(원전은 1990년에 출판).

- Shaver, P. R., & Brennan, K. A. (1992). Attachment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ir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536–545.
- Sroufe, L. A., Carlson, E., & Wchulman, S. (1993). Individuals in relationships: Develop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In D.C. Funder, R. D. Parke, C. Tomlinson–Keasey, & k. Widaman (Eds.). *Studying loves through time: Approaches to personality and development*, 315–342. Washington, DC: APA.
- Stevenson, O. (1954). The first treasured possession. *Psychoanalytic Study the Child*. *9*, 199– 217.
- Strober, M., & Humphrey, L. L. (1987). Familial contributions to the etiology and coures of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654–659.
- Sugarman, A., & Jaffe, L. (1989). *A Developmental Line of Transitional Phenomeno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Thompson, R. A., Lamb, M. E., Estes, D. (1982). Stabi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changing life circumstances in an unselected middle–class sample. *Child Development*, *53*, 144–148.
- Thornburg, H. D. (1982). *Development in adolescence(2nd ed.)*. Monterey, CA: Brooks / Cole.
- Tolpin, M. (1971). On the beginings of a Cohesive self : an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transmutation internalization to the study of the transitional object and signal anxiety.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6*, 316–352
- Trinke, S. J., & Bartholomew, K. (1997). Hierarchi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 603–625.

- Ward, R., & Spitze, G. (1992). Consequences of parent-child adult co-residence: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Family Issues, 13*, 553-572.
- Werner, E. E., & Smith, R.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 Westen, D. (1991). Social cognition and object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9*(3), 429- 455.
- Wilkinson, R. B. (2006). Age and sex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on adolescent psychological health. *Australian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ist, 23*(2), 87-104.
- Wilkinson, R. B., & Walford, W. A. (2001). Attachment and personality i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473-484.
- Willam, C., Jamie, H. A., & Kenneth, S. R. (1997). Transitional objec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250-255.
- Winnicott, D. W. (1953). Transitional object s and transitional phenomena . *Internation Journal of Psychoanalysis, 34*, 89-97.
- Work, W. C., Cowen, E. L., Parker, G. W., & Wyman, P. A. (1990). Stress resilient children in an urban setting. *Journal of Prevention, 11*, 3-17.

<Abstract>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Parental Attachment,
Soothing Ability,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Ego-Resilience of undergraduates

Kim Ae Kyong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ed in Counseling Psychology

Supervised by Kim Sung Bong

This research aimed at investigating causal relationship between undergraduates parental attachment, soothing ability,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ego-resilience.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 the researcher established research subjects as follows.

Research subject 1. Is the causal relationship proper, in the causal model of undergraduates parental attachment, soothing ability,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ego-resilience?

Research subject 2. What is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among undergraduates parental attachment, soothing ability,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ego-resilience?

Research subject 3. What is the mediated effect of undergraduates soothing abilit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in relation with parental attachment and ego-resilience?

Collection group of this research was composed of the sampling of undergraduates of the whole nation to procure representativeness, and randomly collected students of psychology department.

The researcher randomly collected 655 students from total 12 universities, 595 students from 11 universities which first approved upon the request for cooperation of the department professors and teaching assistants among the 39 universities related to psychology department over the country, registered i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60 students from 1 among the universities in Jeju-do.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7 to December 20, 2013, data of 588 students among 655 were collected, which showed 89.7% collect rate, however, the data of 452 students excluding non-response or unreliable response were utilized for final analysis, so that data effective ratio showed 76.8%.

As the research tool, a questionnaire composed of investigation questions specific with parental attachment, soothing ability, psychological separation, ego-resilienc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 As the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e.g. standard deviatio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etc.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objects' general characteristic analysis and parental attachment, soothing ability,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ego-resilience. Also, in order to investigate structural equation model suitability and influencing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18.0 for Windows and AMOS 20.0 program, and for all analysis,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treated by setting 5%.

In conclusion, first, suitability of hypothetical structural equation model among the undergraduates parental attachment, soothing ability,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ego-resilience appeared to be proper for anticipating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Second, undergraduates soothing abilit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positively influenced ego-resilience, however, parental attachment had no influence on ego-resilience.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graduates parental attachment and ego-resilience, soothing abilit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appeared to have meaningful indirect effect, and have full mediation respective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graduates soothing ability and ego-resilience, psychological separation appeared to have meaningful indirect effect, and have full mediation. Als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ego-resilience, soothing abilit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appeared to have meaningful indirect effect simultaneously, and have partial media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ollowing conclusion was derived.

First, all causal model suitability among undergraduates parental attachment, soothing ability,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ego-resilience appeared suitable,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is proper.

Second, undergraduates soothing abilit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positively influenced ego-resilience, however, parental attachment had no influence on ego-resilience. Therefore, it implies that there are other variables in the influence of stable parental attachment on ego-resilience.

Third, undergraduates parental attachment indirectly influenced ego-resilience by the mediation of soothing abilit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Therefore, psychological separation must be reinforced along with soothing ability based on stable parental attachment in order to

raise undergraduates ego-resilience level.

Fourth, undergraduates soothing ability influenced ego-resilience directly/indirectly by the mediation of psychological separation.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undergraduates ego-resilience, psychological separation level also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er suggests some points for follow-up researches as follows.

First, college period has the possibility of the operation of other variables and the variables from the outside besides personal inner variables, e.g. soothing abilit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variable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ego-resilience, therefore, a research which considers both inner · outer factors to improve ego-resilience is necessary.

Second, several researchers use soothing ability measurement tool by excluding some sub factors or reconstituting some questions, however, reliability thereof is relatively low.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result appeared that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appeared meaningful on various objects, soothing ability criterion development based on soothing ability theory and validity verification should be conducted.

Third, in respect of the college period, a research is necessary, which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the operation of other inner · outer variables besides soothing abilit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variable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ego-resilience, which were formed during the childhood, also, it is necessary to plan consultation, program, etc. considering these factors and implement in consultation or psychological treatment field and proceed along with this.

Key words: undergraduates, parental attachment, soothing ability,
psychological separation, ego-resilie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부록】 설문지

N : _____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심리적 독립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에 있는 김애경입니다. 현재 대학생의 부모애착, 자기위로능력 및 심리적 독립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응답하시는 데 약 10분~15분이 소요됩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13조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 개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각 설문지에 들어있는 모든 문항에는 맞거나 틀리는 답이 없으니 보기에 바람직하게 생각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 자료는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 1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 김애경

지도교수 : 김성봉

▣ 연구자 연락처: 김애경 akkim3103@korea.kr

설문지 1. 부모애착

** 다음은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문 항	결 교 그 렇 지 않 다	드 물 게	가 끔	자 주	항 상 그 렇 다	
1	우리 부모님은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	우리 부모님은 부모로서 본분을 다 하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	나는 다른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	나는 격정되는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6	부모님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8	부모님과 함께 나의 문제를 상의할 때, 나는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9	우리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0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2	내가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고려해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3	우리 부모님은 나의 판단을 신뢰하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4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6	나는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7	나는 부모님에게 분노를 느낀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8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9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0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2	나는 부모님을 신뢰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4	나의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5	만약 부모님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설문지 2. 자기위로능력

** 다음은 여러분이 기분이 나쁠 때 자신의 반응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문 항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종종 아무도 내 문제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에 빠진다.	1	2	3	4	5	6	7
2	사람들은 나에게 격려해 주는 것을 힘들어한다.	1	2	3	4	5	6	7
3	내가 원한다면 위로가 되는 즐거운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1	2	3	4	5	6	7
4	나는 잠을 청함으로써 나쁜 기분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종종 느껴진다.	1	2	3	4	5	6	7
5	친구를 만나러 가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1	2	3	4	5	6	7
6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위로받는 기분이 들 것이다.	1	2	3	4	5	6	7
7	기분 나쁘게 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분이 나아지려면 대개 오랜 시간이 걸린다.	1	2	3	4	5	6	7
8	내가 기분나빠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기분이 썩 좋아지지 않는다.	1	2	3	4	5	6	7
9	기분 나쁘게 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빨리 회복된다.	1	2	3	4	5	6	7
10	내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11	때때로 나는 너무 기분 나쁜 감정에 압도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1	2	3	4	5	6	7
12	내 기분을 나쁘게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6	7
13	음악을 들으면(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와 비슷한 다른 활동을 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1	2	3	4	5	6	7
14	내 스스로 격려하기 힘들다.	1	2	3	4	5	6	7
15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손을 꼭 잡아주고 있으면 위로받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6	7
16	누군가 나를 꼭 껴안아주는 것으로 더 이상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1	2	3	4	5	6	7
17	나는 좀처럼 내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18	나는 종종 나쁜 감정을 잊기 위해 술이나 약에 취하고 싶다.	1	2	3	4	5	6	7
19	나는 혼자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7
20	나는 때때로 다른 공상을 함으로써 나쁜 감정에 빠져 나오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7
21	누군가 나와 가깝게 있다는 생각이 내게 도움이 된다.	1	2	3	4	5	6	7
22	나는 혼자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	1	2	3	4	5	6	7
23	나는 대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24	나는 내 고민거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안다.	1	2	3	4	5	6	7
25	나는 때때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	2	3	4	5	6	7
26	나는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	1	2	3	4	5	6	7
27	나는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1	2	3	4	5	6	7
28	나와 가까운 누군가에게 안겨있는 것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6	7
29	나는 종종 그냥 주저앉고 싶어진다.	1	2	3	4	5	6	7
30	나는 때때로 미처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1	2	3	4	5	6	7
31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빨리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	1	2	3	4	5	6	7
32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다.	1	2	3	4	5	6	7
33	가까운 누군가가 내 어깨나 등을 두드려 주면 기분이 나아지는 편이다.	1	2	3	4	5	6	7

설문지 3. 심리적 독립

** 다음은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때때로 부모님은 나에게 부담이 된다.	1	2	3	4	5
2	나는 부모님과 항상 불화상태에 있는 것 같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이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부모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길 바란다.	1	2	3	4	5
5	나는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	2	3	4	5
6	나는 때때로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받고 있는 듯 느껴진다.	1	2	3	4	5
7	나는 부모님이 나를 마음대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8	나는 부모님에게 억지로 순종할 때가 있다.	1	2	3	4	5
9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1	2	3	4	5
10	종종 나는 부모님이 나를 조금 더 어른으로 대해 주길 바란다.	1	2	3	4	5
11	부모님에게 가끔씩 화가 난다.	1	2	3	4	5
12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킬 때면 그 일을 하기가 싫어진다.	1	2	3	4	5
13	부모님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부모님의 생각이기에 듣기가 싫어진다.	1	2	3	4	5
14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지 못할 때면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5	부모님은 나를 부모님편이 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16	나는 부모님과 사소한 일로 언쟁을 한다.	1	2	3	4	5
17	부모님은 때때로 나를 당황하게 한다.	1	2	3	4	5
18	나는 때때로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긴다.	1	2	3	4	5
19	부모님이 나를 평가할 때면 화가 난다.	1	2	3	4	5
20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때때로 기분 나쁘다.	1	2	3	4	5

설문지 4. 자아탄력성

**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번호	문 항	매우 아 니 다	대 체 코 아 냐	보 통 아 냐	그 렇 다	매우 그 렇 다
1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3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인생을 살아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약점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나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8	나는 시험을 망쳐도 그 경험이 앞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이성친구와 헤어져도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내가 겪은 과거의 문제(가족, 친구문제 등)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나는 화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 한다.	1	2	3	4	5
12	나는 기분이 나쁘면 화내지 않을 일에도 화낸다.	1	2	3	4	5
13	억울한 일이 생기면 화를 참을 수가 없다.	1	2	3	4	5
14	누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되받아친다.	1	2	3	4	5
15	나는 힘든 일이 있으면 마구 먹는다.	1	2	3	4	5
16	친구가 내 말을 무시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1	2	3	4	5
17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	1	2	3	4	5
18	나는 후배가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치면 화가 솟구친다.	1	2	3	4	5
19	나는 좋아하는 이성에게 떨어져서 말을 할 수가 없다.	1	2	3	4	5
20	나는 부모님이 혼내시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1	2	3	4	5
21	나는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을 때, 포기해 버린다.	1	2	3	4	5
22	내게 필요한 일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한다.	1	2	3	4	5
23	나는 취업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펙(영어, 자격증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1	2	3	4	5
24	개인 과제를 잘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본다.	1	2	3	4	5
25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한다.	1	2	3	4	5
26	시험기간에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좋은 성적을 위해 공부에 집중한다.	1	2	3	4	5
27	나는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나면 화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8	나는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며 대화한다.	1	2	3	4	5
29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대화한다.	1	2	3	4	5
30	나는 친구들과 삶의 고민을 이야기 나눈다.	1	2	3	4	5
31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고 이해한다.	1	2	3	4	5
32	나는 주변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그들에게 힘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질문을 잘 읽고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보기의 괄호안에 ✓표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은?	①만18-20() ②만21-22() ③만23-24() ④만25-26() ⑤만27 이상()
3. 귀하의 학년은?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
4. 가족의 경제 수준은?	①상() ②중() ③하()
5. 아버지의 학력은?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전문대졸() ④대졸() ⑤대학원졸 이상()
6. 어머니의 학력은?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전문대졸() ④대졸() ⑤대학원졸 이상()

* 경제 수준은 주관적 기준에 의해 표기함

▣ 성의 있는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한 설문 결과에 대한 논의를 알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에 e-mail를 남겨주시면
 성실히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 e-mail :